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newstarrealty.com
Diana 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국계 미국인보단 동양계 미국인”

“영원한 아웃사이더”
인식 갖기 쉬워
한국 방문, 단순한
호기심이 가장 큰 이유



한국 출신 입양인 김용수 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계 미국인’ 이라는 말보다 ‘찢어진 작은 눈’ 등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서린 말이 오히려 듣기 편하다는 앤서니 토니 코바, 김용수 씨는 ‘동양계 미국인’ 이다. “한국 출신 입양인으로서 나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다. 동양계 미국인(아시아 아메리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부 공감할 수 있지만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왠지 모르게 낯선 어감으로 변한다” 는 것이 김 씨의 말이다. 보스톤 코리안 어도пти(Boston Korean Adoptee) 회장 토니는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3개월만에 위스

콘신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됐다. 김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김 씨의 생모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압박감에 갖 태어난 김 씨를 입양 센터에 보냈다. 당시 3살이었던 김 씨의 친형은 모친과 함께 한국에 남았다. 백인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란 김 씨는 스스로 백인이라고 인식하고 싶었지만 환경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정체성 찾기에 매진한 그의 10대는 혼란스러움 그자

체였던 것. 대학에 들어간 그는 곧바로 아시아 동아리를 찾았다. “겉모양은 비슷했다” 고 김 씨는 당시를 회상했지만 성적에 대한 부모의 압박, 치열한 교육열과 경쟁, 대중문화 등의 소재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 학생들과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 문화와 인종을 넘나드는 입양인으로서 그는 결국 스스로를 ‘영원한 아웃사이더’ 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었다는 김 씨는 “정체성 혼란은 아마 모든 입양인들이 오랜 시간 겪게 되는 고충” 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그에게는 ‘아웃사이더’ 인식을 허물어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의 모임, 보스톤 코리안 어도пти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이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출생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으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면으로 계속



패츠 쿼터백 탐 브래디 “게임 볼 바꾸지 않았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 쿼터백 탐 브래디는 22일 오후 연습을 마치고 운집한 기자들에게 공기압이 낮은 풋볼에 대해 자신이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래디는 기자들에게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볼을 바꾸지 않았다” 고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브래디는 기자들의 여러가지 신랄한 질문에 대해 그는 자신이 전혀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풋볼 디플릿게이트

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나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정말 부담이 없다” 고 말해 그의 답변에 잔뜩 기대하고 있던 취재진을 오리무중에 빠뜨렸다. 그는 게임 전에 풋볼을 점검했었다고 말하고 “그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 밝혔다. 브래디는 전반전과 후반전 볼의 그림에 차이점을 느끼지 않았느냐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2013년, 2014년 연속 2년
뉴스타 부동산 미주전체 1위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증명합니다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진양 헬스커넥터 대표 사임

“주정부 교체 후 예상했던 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값진 경험이었다”
 메이데드 코헨 특별보좌관
 임시대표 업무 수행



진양 전 헬스커넥터 대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보험거래소 역할을 하는 헬스커넥터의 대표 진양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6일 사임했다.

진양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패트릭과 베이커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원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상호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결정된 부분”이라며 “충분히 예상했던 바”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값진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진양 전 대표는 사임 후 계획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13년 1월, 당시 헬스커넥터 최고재무책임자였던 진양은 대표로 임명되었고 2년의 임기 동안 수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발생한 웹사이트 오류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보험 신청에 불편함을 겪었다. 진양 전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 공개가입기간을 위해 헬스커넥터는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구축에 나섰으며 6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

헬스커넥터 미디어 담당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는 “2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벌써부터 (진양 전 대표가) 그림자”며 사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는 “그녀는 더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어려운 상황에 그녀가 발휘한 강인함과 도전 정신을 칭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베이커 주지사가 차기 헬스커넥터 대표를 임명하기 전까지 메이데드 코헨 주지사 딜리버리 프로젝트 특별보좌관이 임시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코헨 특별보좌관은 “헬스커넥터 대표직을 영구적으로 맡을 계획이 없다”며 “2월 15일 공개 등록기간이 끝나면 주정부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코헨 특별보좌관은 새로운 웹사이트 구축 작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한국 출신 입양인들, 한인사회 및 비즈니스와 교류 원해

▶▶1면에 이어서

어학연수 및 서울대 생물화학 연구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 씨는 입양 센터를 통해 생모 찾기에 나섰다. 생모를 쉽게 찾은 그는 “운이 좋았다. 다른 입양인 친구들은 보통 가족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김 씨는 생모를 만나러 두 차례 더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국 출신 입양인 단체인 보스톤 코리안 어도티(BKA)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뿌리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나 한국인에게서 느끼고 싶은 동질감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인 것 같다”는 김 씨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는 한인 입양아들과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지난 14일 뉴욕타임즈 지는 ‘왜 한국인 입양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국제 입양제도에 반대하는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국제 입양은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이로써 초래되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좋다 나쁘다 판

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한국의 입양 제도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며 많은 입양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보스톤 코리안 어도티는 멤버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한국어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며 한식 요리 실습, 명절 문화행사 등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작년에는 공감 컨퍼런스를 개최해 뉴잉글랜드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더 이상 ‘아웃사이드’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않게 되어

행복하다”는 김 씨는 현재 캔브리지 소재 생명공학 비영리회사에서 카운셀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보스톤 코리안 어도티 회장으로서는 한인 비즈니스와 한국 출신 입양인들 사이 연결고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보스톤 코리안 어도티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bkadopte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비즈니스 스폰서 문의는 앤서니 토니 코바, 김용수 씨(tony@bkadoptee.org)에게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펴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스톤 올림픽 조직위 갑작스런 기자회견... 왜?

**‘걸어다닐 수 있는 저렴한 올림픽’
홍보 나서
건설, 관광, 교통 분야
7만여개 일자리 창출
‘올림픽 비판 금지’ 계약서,
월시 적극부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올림픽 민간 조직위 ‘보스톤 2024’가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가지며 보스톤 주민 설득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보스톤 주민의 75%가 올림픽 유치에 대한 주민 투표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보스톤 2024 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걸어다닐 수 있는 올림픽’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스톤 2024의 마스터 플래닝 공동위원장 데이비드 맨프레디는 “걸어다닐 수 있는 올림픽을 기획 중”이라며 “33개 올림픽 유치 장소 중 28개가 6마일 이내에 위치하게 되어 선수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리한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 유치 시설은 크게 보스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과 항구를 낀 워터프론트 지역(Waterfront cluster)과 하버드, MIT, 보스톤대학을 포함한 대학 지역(University cluster) 두

군데로 나뉜다.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선수촌(Athletes' Village)과 숙박시설 증축, MBTA 레드라인과 오렌지 라인의 확장 등이 기획 중에 있다.

보스톤 2024의 회장 대 코넬리 “보스톤 올림픽 유치를 위해 47억 달러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단 1달러도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자금은 코카콜라와 같은 국제 스폰서, 방송국, 올림픽 티켓 판매 수익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림픽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 건설안은 130억 달러 예산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 건설안은 보스톤 내 교통시설 확충을 포함하고 있어 “1달러도 세금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코넬리 회장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건설, 관광, 교통 분야에 7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히스패닉과 흑인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업은 교육과 헬스케어에 이어 보스톤 경제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산업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눈



덴 코넬리 보스톤 2024 회장이 지난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부신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스톤글로벌브는 지난 21일 ‘보스톤 시 공무원들은 올림픽 유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하지 못한다’는 합의서에 마틴 월시 시장이 서명했다는 증빙 서류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코넬리 회장은 “모르는 일이다. 코멘트 할 것이 없다”며 짧게 대답했다.

로라 오게리 시장 대변인은 “월시 시장은 보스톤 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어 제약을 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월시 시장도 “계약서의 표준 문안이었던 뿐이다. 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스톤 컨벤션 엑시비션 센터에서 열려 50여개 방송 및

신문사 기자 80여명이 모였다. 보스톤 2024의 데이비드 맨프레디 마스터 플래닝 공동위원장과 보스톤 마라톤 장애인 부문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쉐리 블로엣이 올림픽 유치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은 덴 오코넬 보스톤 2024 회장이 진행했다.

쉐리 블로엣은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스포츠는 내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세계적인 관점을 갖게 해주었다”며 “올림픽 개최는 보스톤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힘과 성취감을 부여할 것”이라는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올림픽 위원회는 지난 9일 2024년 올림픽 미국 개최 후보지로 보스톤을 선정했다. 최종 개최지는 2017년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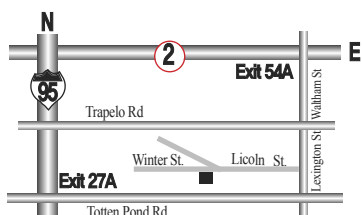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미술관 구정 축제, 한국문화 '조오~타'

세배 체험 행사, 한지공예, 가야금 및 퓨전국악 선보여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복과 세배, 한지 공예, 퓨전국악 연주 등의 다채로운 한국 문화가 보스톤미술관 구정 축제를 통해 오는 2월 21일 보스톤 주민들에게 소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구정 축제(Lunar New Years Festival)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아시안 행사로 자리잡았다.

보스톤 미술관 지역 이벤트 매니저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이는 NEC 하품하는 하마

젠 르클라크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작년에는 6천여명의 관중이 참석했다” 며 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행사를 주관하는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는 세배 체험 행사와 한지 공예 이벤트, 국악 공연을 기획했다.

김병국 회장은 “설날 아침 세대간에 오가는 감사의 절과 덕담의 광경을 설명과 함께 재현할 예정” 이라며 “한복에 매료된 관중들도 직접 세배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배 행사의 진행을 맡은 이현영 씨는 “화려한 한복과 병풍 등 동양미가 돋보이는 소품으로 외국인들의 눈길을 끈다” 며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두들 즐거워하는 행사” 라고 자부했다.

한미예술협회 위원회 임원으로 세배 행사를 기획한 이재욱 씨는 “작년에도 많은 관중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어 한국의 풍속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며 “연례 행사로 발전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세배 체험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에드워드 H. 린드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직접 한지를 제작할 수 있는 한지 공예 이벤트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Shapiro Family Courtyard에서 열린다.

한편,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 현대 즉흥음악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가야금 주자 김도연 씨는 동기들과 함께 퓨전국악 공연팀 ‘하품하는 하마’ 를 구성했다. 지루함을 떨쳐버리고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개성 넘치는 젊은이들을 표현한 ‘하품하는 하마’ 는 국악을 연주하는 팀치고는 구성원이 꽤나 국제적이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아브라함 메넨은 곳에 관심이 많다. 색소폰과 베이스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아브라함은 굿장단과 굿가락에 바탕을 두고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노고’ 라는 곡을 연주한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액은 멀리 떠나가길 비는 마음으로 연주하겠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타악기를 다루는 미국인 학생 아론 옛지콤은 팀명에 걸맞는 곡 ‘하품(Yawn)’ 을 작곡했다. 그는 김 씨와 함께 산조를 연주한다.

마림바와 비브라폰 등을 연주하는 야니브 야코비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지난해 구정축제 때 많은 외국인 관중들이 한국 세배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민요 메들리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벚노래’ 를 편곡해 가야금을 연주한다. 이처럼 뚜렷한 개성과 색채를 지닌 음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퓨전국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섭외된 것에 대해 김도연 씨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며 기대감을 비쳤다.

김 씨는 “국악은 한이 많은 음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어떻게 그 한을 풀어나가는 지를 보여주고 싶다. 민요가락이나 장단, 산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국악의 큰 특징” 이라며 “흥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연주하고 싶다” 고 전했다.

공연에 앞서 김도연 씨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객과 공유하며 즐기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보스톤 미술관 구정 축제는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열린다. 한국 문화 행사 외에도 중국의 사자춤과 쿵푸 공연 등이 준비되며 동양 갤러리 투어가 제공된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아시안 스타일의 점심식사도 즐길 수 있다.

이날 행사는 무료 입장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스톤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fa.org/programs/special-event/lunar-new-year-celebration>)를 참고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시인 김소월의 <새벽> 음악으로 재구성

바리톤 김동원과 피아니스트 린다 오스본의 협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미예술협회(회장 김병국)와 임마누엘 칼리지 실용음악과가 시인 김소월의 '새벽' 을 음악으로 재구성한 무대를 오는 30일 금요일 선보인다. '워드 송 포럼 IX' 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날 연주회는 바리톤 성악가 김동원과 피아니스트 린다 오스본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보스톤 출신 작곡가 김빛나(NEC), 하워드 프라진, 톰 슈나우버, 애덤 사이먼윗이 시인 김소

월의 '새벽' 을 네 가지 음악으로 재구성했다.

하나의 시를 다양한 배경의 작곡가들이 다양한 언어와 관점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시인 남세교 하인즈 씨가 영문번역한 '새벽' 을 바탕으로 창조되었다.

이날 연주회는 무료 입장이다. 자세한 문의는 임마누엘 칼리지 실용음악과 교수 톰 슈나우버 (schnaubertom.wordsong@gmail.com, 617-264-7772)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월 30일 금. 오후 1시



바리톤 성악가 김동원이 오는 30일 시인 김소월의 '새벽'을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장소: 임마누엘 칼리지 강당 (400 Fenway, Boston, MA 02115)
dyoo9146@bostonkorea.com

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과 피아니스트 오민경 협연

모차르트, 리스트, 생상스, 애플턴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과 피아니스트 오민경의 협연이 오는 1월 31일 리버스 스쿨 컨저버토리에서 펼쳐진다.

이날 연주되는 곡으로는 모차르트와 리스트, 생상스 애플턴의 협주곡 등이 있다. 연주회 입장은 무료이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 (<http://www.riversschoolconservatory.org/event/faculty-recital-minkyung-o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 중인 황보엽 바이올리니스트는 보스톤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수 차례 솔리스트로 연주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 파인아츠 현악 4중주에서 활약하던 중 영 아티스트 콩쿨에서 우승을 거뒀다.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입단 전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악장을 맡았다.

오민경 피아니스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NEC, 런던 왕립음악원에서 공부하며 보스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1년 페루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했다. 오 씨는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처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리버스 스쿨 컨저버토리에서 피아노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리버스 스쿨 컨저버토리, 리베라 리사이탈 홀 (333 Winter St., Weston, MA 02493)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황보엽 바이올리니스트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시민협회 정치 인턴십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사장 김성군)의 2015년 정치 인턴십 장학생 모집이 오는 31일 마감한다.

정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학생 모집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동안 정치인 사무실 혹은 정부기관에서 6주에서 8주 가량 인턴십을 하게 된다.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2,000, 고등학생에게는 \$500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관심 있는 학생은 1월 31일 토요일까지 시민협회 인턴십 담당자(임균택 사

무차장, kyuntaek001@gmail.com)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에는 개별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게 된다. 신청서는 시민협회 웹사이트(www.kacl-ne.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작년 인턴으로는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의 김승진(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 코넬대학교의 박솔(매사추세츠 주지사 사무실), 피츠버그 대학교의 티모티 정(프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 학생이 대학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주니어 인턴으로

는 노블엔그리노우 고등학교의 에스더 최, 앤도버 고등학교의 베아트리스 추, 웨스트보로 고등학교의 마이클 영 학생 등이 프랜드 청 캠프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마쳤다.

한편, 인턴십 홍보 및 후원을 위한 모금 만찬이 4월 18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렉싱턴 엘크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이경해 회장(508-962-2989)이나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 임균택 사무차장(857-207-7711)에게 하면 된다.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따뜻한 실내 워터파크에서 즐기는 겨울철 물놀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파도 풀, 슬라이드 등 여름철 물놀이는 생각만 해도 즐겁다. 추운 겨울에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내 워터파크다. 섭씨 29도(화씨 84도)로 맞춰진 따뜻한 실내 워터파크는 겨울철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어른을 위한 뜨거운 스파도 구비되어 있어 연령대를 아우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물놀이를 좋아해 여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최고인 실내 워터파크, 당일치기 혹은 주말 나들이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코코키 워터파크(Coco Key Water Park)
50 Ferncroft Road, Danvers, MA 01923
978-646-1062
www.cocokeyboston.com

보스톤 시내에서 40분 가량 떨어진 코코키 워터파크는 가장 큰 매사추세츠 실내 수영장 중 하나로만 2세에서 12세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 공간이다. 각종 슬라이드, 유수풀, 수중 정글짐 등의 다양한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최신 비디오 게임과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된 아케이드(Arcade)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장난감 집처럼 아기자기한 카바나(Cabana)는 수영장을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쇼파, 텔레비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외부 음식은 반입금지지만 워터파크 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카바나까지 배달이 된다. 카바나 사용을 원한다면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1일 자유이용권인 풀패스는 \$45(122cm 이상)이며 오후 4시부터 이용가능한 트와일라잇 패스는 \$35이다. 122cm 이하 어린이는 풀패스와 트와

일라잇 패스가 각각 \$35, \$30이다. 보호자는 \$20에 입장할 수 있다.



▶그레이트 울프 로지(Great Wolf Lodge)
150 Great Wolf Drive, Fitchburg, MA 01420
866-678-9653
www.greatwolf.com

피치버그에 위치한 그레이트 울프 로지는 보스톤 시내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으로 1박 이상의 숙박을 계획할 때 적합하다. 뉴잉글랜드 최고의 워터파크로 유명한 이곳은 웬만한 놀이공원 스케일의 물놀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파도풀, 각종 다양한 슬라이드, 튜브를 타고 즐기는 대형 토네이도 등의 놀이기구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워터파크 외에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대형 정글짐, 어린이 스파, 미니볼링 및 골프, 극장 등의 시설이 제공된다.

4인 가족의 경우 숙소에 따라 1박은 평일 \$199부터 주말 \$409까지 다양하다. 숙소에 워터파크 이용료가 포함된다. 3월 31일까지 2박 이상에



약 시 20% 할인가가 적용된다.

▶카후나 라구나(Kahuna Laguna)
2251 White Mountain Hwy, North Conway, NH 03860
603-356-5411
www.kahunalaguna.com

4종류의 슬라이드와 파도풀, 핫 탭 등이 구비된 카후나 라구는 뉴햄프셔에 위치한 실내 워터파크다. 일일 이용료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40이며 물놀이를 하지 않는 보호자 입장료는 \$10이다.

워터파크가 위치한 레드 잭트 마운틴 뷰 리조트(Red Jacket Mountain View Resort)와 차로 3분 거리에 떨어진 폭스 리지 리조트(Fox Ridge Resort)가 있어 1박 2일을 잡고 가족 주말여행을 떠나기에 적합하다.



▶제이 피크 펌프 하우스(Jay Peak Pump house)
830 Jay Peak Road, Jay, Vermont 05859
802-988-2611
www.jaypeakresort.com

버몬트 주에 위치한 제이피크 리조트에는 스키장과 대형 실내 워터파크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 워터파크에는 바디 슬라이드, 유수풀, 서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일일 이용료는 15세 이상 \$35이며 15세 미만 어린이는 \$25, 4세 미만은 무료 입장이다. 보호자 입장료는 \$10이며 물품 보관함은 가족용과 개인용이 각각 \$9, \$4이다.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인 가족의 호텔 숙박, 스키 이용권, 워터파크 이용권이 1박에 \$336이다. 이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해당되며 2월 3째주는 제외다. 웹사이트 혹은 전화(800-451-4449)로 예약가능하다.



▶케이프 코더 리조트 (Cape Codder Resort)
1225 Iyannough Road, Hyannis, MA 02601
855-861-4370
www.capecodderresort.com

케이프 코드에 위치한 이곳은 소개된 다른 곳들보다 워터파크 내 놀이기구가 비교적 적다. 파도풀과 슬라이드, 야외 핫풀이 구비된 워터파크도 있지만 다양한 스파를 즐길 수 있어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선호하는 곳이다.

숙박시설에 따라 1박에 \$149부터 \$249까지 다양하다. 워터파크 및 각종 시설이 제공되며 각종 마사지, 패디큐어 등의 비치 플럼 스파(Beach Plum Spa) 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0주년 역사박물관, 문화체험관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학부모회장 이현주)는 오는 24일 토요일 개교 40주년을 맞아 학생들과 학부모를 초청해 역사 박물관과 한국의 민속 문화체험 행사를 갖는다. 교사회 주최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역사박물관'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와 대한민국의 주요 문화재들을 선별하여 모형으로 조립하고 사진자료와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함께 전

시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시대별로 변화한 나라들의 모습을 모두 4장의 대형 지도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교사회에서는 세배방을 비롯하여 약 40가지의 체험관을 열고 2세들을 위한 이중언어 과정을 진행한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토요일 행사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2월 21일에 2015년도 봄학기가 시작되며 반배정을 위한 신입생을 모집은 2월 21일 오전 8시 반에 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다. 재학생의 봄학기 등록 마감은 1월 31일, 신입생은 2월 15일이다. 남일 교장은 "봄학기에 2세들의 뿌리 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봄학기 등록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남일 교장(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해 열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세배 배우기 행사

한인 정치 영향력 확대 컨퍼런스 뉴저지서 열려

“유대인 연합단체 보고 리더십 배워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내 한인 정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뉴저지 잉글우드 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김성혁 회장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소식을 전했다.

한인 유권자 센터(대표 김동찬) 후원으로 기획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보스톤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텍사스, 마이애미 등 미주 전역에서 초청된 한인 사회운동 지역 리더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의 안건으로는 미주 사회속 한인 정치력 신장과 영향력 확대가 제기되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 센터 상임이사는 "미주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미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연합단체 AIPAC를 보며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한인 특별 취업쿼터 15,000개(HR1812)가 통과될 경우 한인 인재들의 미주 취업을 통해 한인 경제력 및 정치력의 신장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분단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내 미주동포 가족의 생사 여부와 인권 보호 및 가족상봉 등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 나아가 한인들의 신장된 정치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 보스톤 시의원 샘 윤이 대표로 활동하는 CKA(Council Of Korean Americans)가 한인 유권자 센터와 합류하여 더욱 효과적인 한인 정치력 신장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참여 인사들은 "각 지역의 성공적인 한인 차세대와 1세대 한인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하면 좀

더 큰 영향력으로 미주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세대와 차세대의 결속을 강조하였다.

한편,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코리안 아메리칸 풀뿌리 컨퍼런스(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를 위해 각 지역의 디렉터가 임명되었다. 뉴잉글랜드 지역 디렉터로는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이 선정되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끝으로 "연합된 한인 풀뿌리 운동의 결집력이 널리 펼쳐져 미주 한인사회의 권익이 한층 신장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5일부터 17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컨퍼런스가 뉴저지에서 열렸다

세금 보고 시작, 마감 4월 15일

오바마케어 미가입자 벌금 인상
보험가입 유무 필수 기입항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연방국세청(IRS)이 지난 20일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했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첫 세금보고로 예년과는 다르게 오바마케어 관련 조항들이 대거 추가되어 납세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세금 보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크게 인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의 1% 혹은 가구 1인당 \$95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가구 소득의 2% 혹은 1인당 \$325로 벌금이 인상된다. 벌금은 환급 금액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처

리된다. 세금 보고를 대행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들도 이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에 한창이다. '인튜이트'는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조항에 답하지 않을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의 예산 감축에 따라 인력이 줄어든데다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 가입 유무와 보험료 지불을 위해 받는 텍스 크레딧 내역 등을 밝혀야 해 업무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년과 같다. 세금 보고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연방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패트리어츠, 이번엔 '디플릿게이트' 논란

콜츠의 라인백커 잭슨의 의문제기로 최초 시작
패트리어츠의 업적에는 치명적인 불명예로 작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 일요일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꺾고 AFC 챔피언 트로피를 손에 넣은 패트리어츠가 이번엔 풋볼의 바람을 적게 넣어 사용했다는 소위 '디플릿게이트(감압게이트)'에 시달리고 있다.

패트리어츠 쿼터백 탐 브래디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빌 밸러치 감독도 별일 아니라고는 하지만 NFL 사무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에서는 패트리어츠의 AFC 챔피언 자격을 박탈하고 슈퍼볼 진출 자격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경기에 사용되는 풋볼은 최소 12와 2분의 1에서 최대 13과 2분의 1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의 공기압을 주입해야 한다. 보통 공기압을 뺀 풋볼은 지난 일요일처럼 약천후인 경우 잡기가 쉬워 공격이 용이하다. 공기압이 최대인 경우 수비수가 받을 때 바운스가 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지난 일요일 경기 콜츠 26야드 지점에서 브래디가 랍 그론코우스키에 패스한 볼을 콜츠 라인백커 디 큐엘 잭슨이 인터셉트 했을 때 발생했다. 잭슨은 자신이 받은 볼의 공기압이 낮은 것 같다고 인디애나폴리스의 장비 매니저에게 말했고 이는 콜츠의 라이언 그릭슨 제너럴 매니저를 거쳐 현장을 운영하는 리그의 디렉터에게 전해졌다.

NFL 공식 게임용 볼의 규격



NFL의 심판 부사장 딘 블래디는 19일 "의심가는 풋볼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것을 추후에 검사하는 것은 결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NFL 사무국은 수일내로 감압 여부가 판별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NFL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락 커룸에서 벗어난 풋볼은 선수, 장비 감독, 볼보이, 감독 등 어느 누구도 풋볼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 또는 구단 관계자에게 2만5천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NFL 사무국은 내년 1라운드 신인선수 선발권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감압게이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패트리어츠의 평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더구나 패트리어츠는 지난 2007년 상대방수비수의 신호를 불법촬영한 위반으로 밸러치는 5십만불, 패트리어츠는 25만불의 벌금을 받았으며 2008년 신인선수 선발권을 취소당했다.

이 같은 불명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부정행위로 지금

까지 승리를 쌓았다는 오명을 사게 된다.

NFL은 각팀은 12개의 공을 준비해 심판진에게 제공한다. 심판진은 경기 두시간 전 각 풋볼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게, 공기압, 생김새의 변형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심판들의 검사를 거친 후 각팀은 자신이 준비한 풋볼을 번갈아 사용하게 된다. 만약 날씨가 아주 나쁜 경우 각팀은 24개의 풋볼을 각각 준비한다.

심판진의 심사를 통과한 풋볼은 게임용 볼로 마크가 되며 이 게임볼은 각 진영에서 토스할 때 사용되는 볼들과 구분되도록 한다. 각 팀은 게임볼을 지키는 인원을 고용하여 이 볼을 살피며 경기 도중 리그의 규정에 맞는 지 검사토록 되어 있다. 이런 철저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같은 감압된 풋볼이 사용됐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editor@bostonkorea.com

NFL 사무국 패트리어츠에 통보 “패츠 공기압 낮은 볼 사용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지난 18일 콜츠와의 경기에서 공기압이 낮은 볼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사는 이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여부다.

보스톤 글로브 21일 보도에 따르면, NFL의 관련 편지를 확인한 결과 NFL 측은 패트리어츠 구단에 게임에 사용됐던 풋볼의 공기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FL은 해프타임 동안 12개의 볼을 다른 측정기로 두번에 걸쳐 측정된 결과 상당수의 풋볼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ESPN은 12개 중의 11개가 약 2파운드 가량 낮은 공기압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NFL 측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2-3일 내에 모

든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심판진이 풋볼을 조사한 이후에 패트리어츠 구단이 볼을 변형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록 추운 날씨에는 압력에 영향이 있지만 하지만 경기 당일 온도는 51도로 아주 높은 편이었다.

지난 18일 경기 3쿼터 첫번째 플레이부터 심판진들은 약 1분간 경기를 중단시키고 게임 볼을 교체했다.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한 플레이에 한 번 정도 풋볼을 잡는 심판진은 해프타임까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풋볼을 바꾼 후 3쿼터에서부터 패트리어츠는 28대 -0로 완전하게 콜츠를 눌렀다. 해프타임 전까지 패트리어츠는 17-7로 앞서나갔다.

editor@bostonkorea.com

탐 브래디, 빌 밸러치 모두 관여부인

▶▶1면에 이어서
는 질문에 “경기장에 나서면 나는 경기를 하며 풋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쿼터에서 2쿼터까지 한번도 풋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브래디는 콜츠와의 경기에 대해 “경기는 공정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래디의 기자회견에 앞서 빌 밸러치 감독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디플릿게이트에 대해 아무런 설명할 것이 없으며 40여년의 풋볼 경력

중 이와 같은 문제를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풋볼의 상태에 대해서는 “쿼터백인 브래디가 더 잘 안다. 브래디에게 물어보라”고 말해 기자들은 오후 연습이 끝나고 가질 브래디와의 기자회견에 온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패트리어츠의 디플릿게이트에 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날 패트리어츠의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운집해 복새통을 이뤘다.

editor@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이안 올림픽 지지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찬반투표 원해

WBUR 여론조사 미지근한 지지 이유
올림픽 이후 세금부담 우려
런던과 브라질은 65, 85% 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WBUR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5% 압도적인 보스톤 주민들은 2024년 올림픽 개최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를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면 결국 이 권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보스톤 올림픽을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절차를 거쳐 치뤄지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월시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보스톤 시정부)가 주민들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권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보스톤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단언컨대 오늘 당장 투표를 실시하면 과반수가 보스톤올림픽 유치에 대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밝혔었다.

과연 그럴까. WBUR은 월시 시장이 주장했던 바를 바로 여론조사에 부쳤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에 대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스톤이안들은 48%가 사실상 기쁘고 기대된다고 밝혔고, 43%는 기쁘지 않다고 답했다. 따라서 보스톤 시장의 질문은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약간 다르게 질문했을 경우



보스톤이 2024년 올림픽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보스톤이안들이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즐거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답은 달랐다. 51%의 보스톤 주민들은 올림픽 유치에 대해 지지했으며 단 33%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128번 도로 이내에 놓인 그레이트 보스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찬반의 격차는 다른 개최도시들에 비해 과히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의 여론조사 결과 런던의 경우 68%가 2012년이 올림픽을 강하게 지지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답변을 택했었다. 브라질의 리오 데 자이아루의 경우 85%의 주민들이 지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 한 Mass INC의 카젤라 대표는 IOC의 유치 결정을 이끌어 내려면 보스톤의 경우 더 많은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OC는 자체 평가의 한 방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반드시 지지도가 높은 시를 선택한다. 카젤라 씨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지근한 지지를 보인 것은 아마도 공적자금 투여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하는 면은 올림픽 이후에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고 카젤라 씨는 지적했다. 월시 시장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금을 사용해 경기 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보스톤 주민들은 57%가 세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혀 보스톤 시장의 말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올림픽 반대 그룹인 노보스톤올림픽이 계속 차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와 결합하는 경우 사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보스톤 주민들의 마틴 월시 시장에 대한 지지는 74%로 지난 토마스 메니노 시장의 지지도보다 높다. 따라서 마틴 월시 시장이 향후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월시 보스톤 시장 올림픽 주민투표 막지는 않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2024년 보스톤 올림픽 개최에 대해 주민찬반투표에 부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 같은 주민찬반투표를 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달 초 미 올림픽 위원회가 보스톤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발표한 후 기자회견에서 마틴 월시 시장은 결코 주민투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스톤 시 보니 맥길핀 대변인은 20일 이메일을 통해 “월시 시장이 결코 주민투표에 반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WBUR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 주민들은 51%가 올림픽 개최에 찬성하지만 그보다 많은 75%의 주민이 공개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찬성했다.

보스톤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그룹 노보스톤올림픽 측은 “보스톤 주민들이 올림픽 개최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마틴 월시 시장의 견해를 존중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몇몇 그룹들은 매사추세츠 주 전체 투표 또는 보스톤 시 투표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노보스톤올림픽 측은 두 투표 모두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그룹의 덴지 회장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 더 많은 주민들이 보스톤 시가 포기해야 할 것에 많이 알아



갈수록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주 전체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보스톤 이외의 지역의 주민들도 보스톤 올림픽 개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주 전체 투표를 위해 모아야 하는 서명만 해도 커다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보스톤 시 주민투표는 상대적으로 적은 서명지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 11월에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월시 시장은 주 전체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월시의 선거진과 노조들을 활용할 경우 주민투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WBUR의 평가다.

보스톤 시 맥길핀 대변인은 월시 시장은 이번 올림픽 개최로 보스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보스톤 시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	-------------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포괄적 프리킨더 법안 추진

대기자 명단에 있는 3-4세 아동 즉각 혜택 15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미지수



프리킨더 교육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모든 3세, 4세 아동들에게 프리킨더가든(pre-kindergarten, 이하 프리킨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 20일 공개된 프리킨더 법안은 가족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프리킨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3-4세 아동에게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이 장차 초등학교 이후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 간 학업 격차를 줄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모든 학군들이 프리킨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5년간 지속되며, 이후에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많은 학군에 우선적으로 자금이 배당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39%가 읽기 능력이 해당 학년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프리킨더부터 조기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수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프리킨더 교육을 받은 학생은 초등학교 진학 이후 특별 교육을 신청하는 비율이 프리킨더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40%나 적었다. 프리킨더 교육을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비율이 30% 높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두 배 높다.

프리킨더 법안을 상정한 소니아 챐-디아즈 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기자 명단에 있는 6천명

정도의 아동들이 주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들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해 매사추세츠 예산 센터에서 계산한 자료를 보면 프리킨더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3-4세 아동들에게 공립학교에서 프리킨더 교육을 제공하면 연간 약 1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프리킨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날, 공교롭게도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올해 6월 30일에 끝나는 2014 회계연도에 매사추세츠는 7억 6천 5백만 달러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jsi@bostonkorea.com

도체스터 차트스쿨 교사 상금 15만불 학교에 전액 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도체스터의 차트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온라인 콘테스트에서 획득한 상금을 전액 학교에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채널 5에서 방영된 TV 토크쇼 엘렌 쇼(The Ellen Show)에 유포 아카데미 도체스터(UP Academy Dorchester)에서 3학년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니콜 블러먼이 초대되었다. 블러먼은 캐피탈 원(Capital One)에서 작년 가을에 트위터를 통해 주최한 온라인 콘테스트에서 우승 상금으로 15만 달러를 받았다.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Wish For Others)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테스트에서 블러먼은 “열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학자들이 겨울 방학을 시작할 때 모두 손에 책을 들고 학교

를 나서는 것” 이 소원이라고 적었다.

블러먼의 소원은 이루어져서 캐피탈 원의 후원으로 업 아카데미 도체스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블러먼이 직접 고른 책을 3권씩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블러먼은 우승 상금으로 받은 15만 달러도 유포 아카데미에 전액 기부해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블러먼은 “해야 할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답답히 말했다.

엘렌 쇼에서는 블러먼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스킵스로 가득 찬 수조와 2만 5천 달러가 적혀 있는 수표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업 아카데미 도체스터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용품이 들어 있는 책가방과 100달러짜리 타겟 기프트 카드를 증정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달여먹는 정성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정관장 최고의 명품 제품
홍삼 추출액

엄선된 홍삼만 100% 사용하여 추출한 제품으로 홍삼 본연의 풍미를 느끼기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홍삼으로 매서운 한파 이겨내세요

보스톤의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온가족 정관장 홍삼제품으로 면역력도 지키고 떨어진 체력도 보강하세요!

어린이 홍삼으로 출시!! 홍삼 엑기스 200mg 함유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FREE

현대 지하철차량 선정관련 MA 정부소송

중국 기업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 주어졌다 주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매사추세츠 주 지하철 차량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 로템이 매사추세츠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 측은 드별 패트릭 전 주지사 행정부가 지난해 레드, 오렌지 라인 지하철 차량 선정과정에서 중국 정부에게 “유리한 위치 (inside track)” 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일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현대 로템은 중국의 CNR이 불공정하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284량의 차량을 건설하는 입찰계약을

5억6천6백60만달러 (\$566.6 million)을 제기한 중국 CNR과 맺었다. 현대측은 드별 패트릭 전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리처드 데이비 교통장관이 홍콩 방문시 CNR 벤처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만났으며 입찰조건을 CNR에게 완화해줬다는 의혹을 소장에서 제기했다.

MBTA 도 폐사투로 대변인은 중국과의 계약이 “길고 철저한 정부물자 계약과정의 한 부분이며 MBTA는 현대 로템을 비롯해 모든 입찰자들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 고 밝히고 “현대 로템의 입찰가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이는 매사추세츠 납세자들의 최대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로템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이 어떤 이득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현대 로템은 지난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소송에서 지난 계약을 철회하고 차등 입찰자인 현대 로템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조달 프로세스는 아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MBTA는 입찰자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덕스런 결정을 내렸으며 입찰 서류의 조건을 고수하지 않았다. 또한 CNR에 대한 최소한의 전면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법을 위반했다” 고 주장했다.

현대 로템은 또 2013년 홍콩의 접견에서 CNR이 스프링필드에 미 본부를 건립한다는 것이 협상의 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입찰자들에게는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시 월요일 시청 광장 패트리어츠 출정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시는 오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시티홀 플라자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슈퍼볼 출정식을 주최한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주재하는 이날 출정식에는 패트리어츠 구단주 로버트 크레프트와 빌 밸러칙 감독, 각 팀의 주장인 탐 브래디, 댄 코넬리, 빈스 윌포크, 매튜 슬레이터, 데브 맥코티 등이 참석한다. 한인들에게는 경기장에 가지않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스타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슈퍼볼 출정식은 패트리어츠 아나운서 존 루크가 사회를 맡으며 패

트리어츠 치어리더들과 패트리어츠 마스코트 팻 패트리어츠, 그리고 결승존의 패트리어츠 민병대 들도 함께 참여한다.

‘디플레잇게이즈’ 로 한창 비난을 받고 있는 패트리어츠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난 이후의 행사이고 또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번 행사에서 언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소 : City Hall Plaza, Boston
 시간 : Monday, January 26, 2015, 11:00 a.m.
 hsb@bostonkorea.com



패트리어츠 디펜시브 라인 주장 빈스 윌포크. 일요일 경기 후 귀가길에 뒤집힌 차량에서 사람을 구해내기도 했다

보스톤 브리감 위민스 병원서 한 남성, 의사 총격 후 자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일 오전 11시께 지난해 사망한 엄마의 치료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보스톤 소재 브리감앤 위민스 병원에서 심장외과 의사에게 총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혔다. 브리감앤 위민스 병원은 많은 한인들이 출산을 위해 찾기도 하며 미국내 병원 평가에서 10위권을 벗어 나지 않는 명문 병원이다.



데이비슨 박사를 사살한 스티븐

밀버리 소재 스티븐 패서리(55)씨는 병원을 찾아서 심장외과의인 마이클 데이비슨(44)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브리감앤 위민스 2층에 소재한 검사실로 들어서는 데이비슨 박사에게 총격을 가했다. 스티븐 패서리의 어머니 마가렛 패서리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스텝들은 즉시 상처를 입은 의사를 응급실로 옮겼으나 결국 20일 밤 사망했다.

병원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총격이 있었음을 알리고 대피할 것을 지시했으며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경찰은 지원병력 그리고 경비대원들과 함께 각 방을 수색한 끝에 자신의 총으로 자살한 패서리를 발견했다.

패서리가 총을 발사하기 바로 직전 데이비슨 박사는 환자와 스텝들에게 피하라는 말로 경고하고 총탄을 맞았다.

데이비슨 박사는 지난 2006년이래 브리감 심장외과의로 근무해 왔으며 하버드 의대 조교수다. 그는 1996년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듀크대에서 인턴트레이닝을 받았다. 웰슬리에 거주하는 데이비슨 박

사는 성형외과의 인 부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으며 현재 부인은 임신 7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료들과 이웃들 모두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동료이자 이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격을 가한 패서리는 밀버리에서 2층 콜로니얼 스타일의 집에서 거주하며 밀포드 소재 워터스 콕에서 일하고 있었다. 패서리의 어머니 마가렛 패서리씨는 브리감 위민스 병원에서 데이비슨 박사에게 수술 받은 지 3개월 후인 11월 회복 과정에서 폐출혈로 사망했다.

스티븐 패서리는 수술후 사용한 처방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데이비슨 박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스티븐의 동생은 밝혔다. 스티븐은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성인 자녀를 두었다.

총격사건이 발생하자 병원 환자, 스텝, 방문객들은 병원안에 약 45분간 갇혀있어야 했으며 일부는 검사실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는 봉쇄됐고, 이 근처 대중교통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하버드 대학교(MBA)을 마치고 디펜스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플랜지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에 매력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p>LEXINGTON</p> <p>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p>	<p>ACTON</p> <p>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p>	<p>NATICK</p> <p>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p>
--	---	---

오바마 중산층 경제학, 국정주도·대선 동시 겨냥



경제활성화, 중산층지원
'올인...테러·사이버테러 강경'

'마이웨이' 고수 공화당과
차별화...극한대치 예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의 승부수로 던졌다.

20일 오후 9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최대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어젠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무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밀려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오히려 레임덕(권력 누수)만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자증세와 중산층 살리기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승부수는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로 집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몇몇 소수에겐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며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 500억 달러 이상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화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자칫 '반서민 정당', '부자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서 차기 대선 가도에까지 빨간 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임기 말 업적 쌓기와 2016년 대선 승리 발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한 그야말로 '절묘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다수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구상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더 현명한 리더십' 발휘...테러·사이버테러 강경 대응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받아 온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이 아니라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 다자 개입에 기반한 '더 현명한 리더십'(smarter kind of American leadership)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거세게 몰아치며 업포(bluster)를 놓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꾸준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와 53년 만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13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언, 이란과의 핵 협상,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등도 이 같은 외교원칙의 성과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對)이란 추가 제재 법안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

겠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 이슈에서도 공화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관련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상군 투입 없이 미군 주도의 공습과 이라크 정부군 및 시리아 온건반군을 지상군으로 활용해 IS 격퇴 작전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지금의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 인사들은 현재 지상군 투입 없는 IS 격퇴 작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대해서도 IS 격퇴를 위한 미군의 대외 군사 작전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이 단합돼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의회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승인해 준 알카에다와 탈레반, 이들의 연계조직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을 이용해 지금까지 IS 격퇴 작전을 벌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위협과 관련해서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니 해킹'으로 촉발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며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예상과 달리 미 정부가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후변화 등 각종 어젠다 강력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인 2014년 이 기온 집계기 시작된 최근 135년간 가장 더운 한해였다는 미국 국립해양 대기청(NOAA) 등의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서 기후변화 대책도 강력히 밀어붙일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책의 연장선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키스톤XL 송유관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키스톤 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기간산업 발전을 시키자며 좀 더 거시적인 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천700km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업으로, 공화당은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미국산 공산품 및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sims@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Grand Opening

Bliss Image

Open 7 Days

FULL SERVICE DIVERSE SALON AND SPA

- Hair (남녀 헤어컷, 펌, 케라틴 트리트먼트, 하이라이트, 컬러, 코팅)
- Skin (all types Facials and Microdermabrasion)
- Nail (Manicure, Pedicure, Gelnail and Spa)
- Waxing (원하시는 어느 부분이든 됩니다)
- 속눈썹 연장 (Lasts up to 3 months, Water Resistant)
- Body Massage (Swedish and Deep Tissue massage)

Hollywood Lashes

Semi Permanent Lash Extension

•Both men & women can benefit
•Waterproof and weather Proof
•Comfortable and natural just like your own eyelashes

EYELASH EXTENSION COURSE AVAILABLE

Certification of Completion given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Wanted:

Chair for Rent(Hair Stylist)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미국 석유개발기업 저유가 충격에 잇단 감원

(뉴욕 AFP=연합뉴스) = 저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석유개발 기업들의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대 기업들이 발표한 감축 규모는 1만7천 명에 이른다.

지난주 세계적인 석유 서비스 전문 기업인 솔름베르거가 유가 폭락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체 인력의 7.5%에 해당하는 9천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3위 업체 베이커 휴즈도 3월 말까지 직원의 11.3%인 7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베이커 휴즈를 인수한 2위 업체 헬리버튼 역시 미국 밖 해외 사업장에서 1천명을 감축하면서 "우리의 인력 조정은 주요 경쟁 업체와 맞춰질 것"이라며 추가 감축을 예고했다.

마틴 크레이그 베이커 휴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가격 인하와 비용을 맞추는 문제를 두고 고객사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브 레사르 헬리버튼 회장도 지

난해 말 고객사와 가격 인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최근 몇 주 동안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비용 삭감은 모든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유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60% 이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텍사스와 멕시코만 지역의 에너지 기업들이 유가 하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인원 감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mihee@yna.co.kr

하버드, 예일 유전자조작생물 통제기술 개발

인공 아미노산 없인
못 사는 대장균 개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 연구진이 영화 '쥘라기공원'에서 공룡 번식을 막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한 처처럼 유전자조작생물(GMO)이 인공 영양소 없이는 살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 연구진은 22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각각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계에는 없는 인공 아미노산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대장균(E coli) 등 GMO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새로 만든 GMO가 단순히 특정 유전자를 조작한 게 아니라 유전암호를 아예 재작성한 것이라며 '유전자재작성작물(GRO: Genetically Recoded Organism)'로 명명했다.

GMO가 자연환경에 노출될 때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안전성 우려는 GMO가 농업이나 에너지

생산, 폐기물처리, 의학 등에 널리 사용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일대 패런 아이작스 교수팀은 대장균 등 여러 박테리아의 DNA를 조작해 자연계에는 없는 합성 아미노산을 흡수해야만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GMO는 사람이 이 합성 아미노산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이작스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GMO의 농업 활용에, 더 넓게는 환경 재생이나 의료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을 하나 만든 것"이라며 "GMO의 생화학

적 봉쇄 연구에 하나의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자평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팀은 유전체(게놈) 곳곳에 생존을 위해서는 합성 아미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유전자를 삽입한 대장균을 만들었다.

이 대장균은 연구진이 공급하는 합성 아미노산이 없으면 RNA를 해석해 적절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오류가 생겨 생존할 수 없다.

특히 이 대장균은 이런 유전자



자연계에는 없는 합성 아미노산이 있어야만 살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유전자재작성생물(GRO)을 설명한 그림. 예일대 연구진 제공.

게놈 곳곳에 있어 유전적 돌연변이를 통해 생존방법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고 바이러스 감염에도 강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처치 교수는 "이 대장균은 이제 유전자 하나를 편집하거나 복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게놈 전체 수준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라며 "이 방법이 GMO가 자연환경에서 확산하지 않게 막아주는 생물학적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citech@yna.co.kr

오바마 지지율 20개월만 50%선 회복...경기회복 기인?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일(현지시간) 연두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을 회복했다. 이는 2013년 5월 이후 약 1년 8개월만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가 19일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4%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정보 기관의 정보 수집 폭로 및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인해 40% 안팎에 그쳤다. 워싱턴포

스트와 ABC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경기 회복을 꼽았다. 실제 응답자의 41%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의 27%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과 같은 48%로 집계됐다. 그동안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을 웃돌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jjung@news1.kr

구글, 이통서비스 직접판매... 스프린트·티모바일 망 이용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제3·4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유에스의 망을 이용해 이동통신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통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알뜰폰' 사업

자와 같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방식이다.

구글 MVNO 사업의 지역적 범위, 가격 책정, 서비스 개시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은 이 계획에 '노바'(NOVA)라는 이름을 붙였다.

구글이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려는 목적은 온라인 검색과 유튜브 비디오 등이 이 회사 서비스를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무선 데이터 요금을 낮추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 내용에 관해 구글, 스프린트, 티모바일유에스 등 관련 기업들은 모두 함구하고 있다.

solatido@yna.co.kr

삼성전자 "블랙베리 인수 계획 없다" 재확인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블랙베리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입임원 만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블랙베리를 인수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블랙베리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

리는 보안 서버와 네트워크 특허권에 강점을 갖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밀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줄면서 경영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가 75억달러(약 8조1000억원)에 블랙베리 인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블랙베리와 삼성전자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매각에 대한 논의한 적

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삼성전자가 둔화된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용(B2B)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블랙베리 인수설'은 끊임 없이 나돌고 있다. '보안'을 무기로 내세우던 블랙베리가 매물로 나와있어, 두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한 세력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을



신종균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4에서 녹스 2.0을 소개하고 있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블랙베리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녹스2.0 버전까지 내놓는 등 자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스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보안 솔루션이다. song65@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크업
 왁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중산층도 잃을라"...연말정산 '소급' 카드 꺼내든 여

김무성, 최경환 실수 지적 뼈격대던 당정청 관계 주도권 잡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세제개편 보완책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바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에서 벗어나 연말정산 논란 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며 "당정협에서 올해 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주도적으로 정부를 이끌면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가진 국무위원들과의 티타임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분위기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처럼 극약처방을 내놓은 배경에는 당장 4·29 보궐 선거뿐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당내 불안과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대신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총대를 짰던 데다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담뱃값 인상 등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의 따가운 질책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당 내에선 "언제까지 정부 뒤치닥거리를 당에서 할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가뜰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곧이어 연말정산 논란까지 불거지자 서민층 표뿐 아니라 중산층의 표까지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이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민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우 대변인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긴급 소집해 해결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말정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21일 오후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보완책 소급적용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기재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와 주 정책위의장 등의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김 대표가 전면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서둘러 수습책을 제시하고 나선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신년회 결과 '청와대 문건 배후 수첩 파동' 등 잇단 악재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

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폭탄까지 터지면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하락될 것이 예상되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확실한 카드를 내밀어 국면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김 대표와 기업사내유보금 과세와 국가재정건전성 판단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미묘한 경쟁관계를 이어온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실수가 부각되면서 김 대표가 관계 설정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게 돼 김 대표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위해 전북 익산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한대로 그대로 됐다. 정부에서 조세 형평을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도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올해 해당되는 것부터 적용시켜야 된다. 잘된 결정이다. 당에서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강한 강도로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haru@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AN. 23RD - JAN. 29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수량에 제한이 있으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Follow us on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more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cipes, events, announcements, and even entertainment!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www.facebook.com/hmartofficial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H MART



Let's Go Places

WIN THE NEW 2015 TOYOTA RAV 4 XLE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Until Apr. 9th, 2015

at All MA Stores (Drawing Date : Apr. 12th, 2015 @ 4pm)
 Simply inser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s in the Sweepstakes Drawing Bin & you could be a winner. **SMART CARD MEMBERS ONLY WITH OVER \$20 PURCHASE.**



2015년형 토요타 라브 4 XLE의 당첨 기회를 잡으세요! H마트 MA 매장 스마트 카드 고객은 \$20이상 장을 보신 후 영수증에 찍힌 응모권으로 응모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TOTAL 83 WINNERS!



- 1st Prize : TOYOTA RAV 4 XLE - \$25,000 + value (1 winner)
- 2nd Prize : COCO Cosmetics Gift Set - \$499.99 (1 winner)
- 3rd Prize : AMORE Cosmetics Gift Set - \$99.99 value (1 winner)
- 4th Prize : Hmart Food Court Gift Certificates Pack - \$50 value (20 winners)
- 5th Prize : JUNG KWAN JANG RG Latte Box - \$20 value (10 winners)
- 6th Prize : HARU HARU Milled Rice 15 lbs. (50 winners - 25 per store)

No purchase necessary to win. You may also simply sign up for a Hmart Smart Card in order to receive (1) raffle ticket. Must be a legal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o win. All taxes and fee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vehicle winner. All Hmart employees, families, related vendors, & tenants of all Hmarts are ineligible to win. You may email us at marketing@hmart.com for more details.



*The actual prize may look different than the image above.

WINTER WONDERLAND SAVINGS

Bright, white, joyful savings. Come in and enjoy the winter prices.
 겨울의 즐거운 기분을 담아 눈썹까지 겨울 세일전을 준비했습니다.

-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49 lb.
- BABY OCTOPUS 푸꾸미 16-25's \$3.99 lb.
- BEEF HEEL MEAT 소사태 lb. \$6.99
- BEEF BONES 냉동 사골 \$1.49 lb.
- HAIOREUM JAPANESE STYLE NOODLES UDONG \$2.99
- HAIOREUM STEAMED BUN \$2.93 ea./for
- 슬무늬 실내화 Green/Gray/ea. \$3.99
-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4.99

GRAB SOME OF THE BEST CRAB STICKS!

100% Premium Quality
 Tongtongbay Seafood and Fish
 깨끗하게 만든 신선하고 간편한 통통배 게맛살!

<p>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p>	<p>Korean Singo Pear 신고배 박스 box \$24.99</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99</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7.99</p>	<p>Whole Chicken 통닭 lb. \$1.79</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p>	<p>Salted Beltfish 자반 갈치 \$3.99</p>	<p>White Perch 붕어 lb. \$1.99</p>	<p>SUHYUP Yellowtail 수협 냉동 방어 lb. \$1.99</p>	<p>TONGTONGBAY Half Cut Crab 통통배 절단 꽃게 1.5 lbs./2L/pkg. \$5.99</p>	<p>HARU HARU Brown Rice & Brown Sweet Rice 15 lbs. \$17.99</p>
<p>Kyong Gi Rice 경기미 40 lbs. \$29.99</p>	<p>OTTOGI Jin Ramen 오투기 진라면 Hot/Mild 4.2oz. x 20ea./box \$11.99</p>	<p>CHUNGJUNGONE Hot Pepper Paste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5.5 lbs. \$9.99</p>	<p>SEMPIO Jin Gold-S Soy Sauce 선포 진간장 금 60.8fl.oz. \$5.99</p>	<p>K TOWN Bibimbap/Japchae 케이타운 비빔밥/잡채 9.87 - 10.86oz. \$3.99</p>	<p>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골뱅이 캔 14.1oz. \$4.99</p>
<p>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oz. \$2.99</p>	<p>HAIOREUM Soy Soy Delicious Soymilk 해오름 쏘이쏘이 All Flavors/6.76fl.oz. x 24ea./pkg. \$9.99</p>	<p>MAZEL Coffee Mix 마젤 커피믹스 All Flavors/100cnt/pkg. \$11.99</p>	<p>FIORA Bathroom Tissue 피오라 화장지 24rolls/pkg. \$8.99</p>	<p>HANSIL Buckwheat Pillow 한실 메밀베개 Green/Purple/ea. \$13.99</p>	<p>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 Warmer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S-TSC18/10cups/ea. \$149.99</p>

당정, 연말정산 소급 입법...5월부터 환급

13월의 보너스 대신 증세 성난 민심에 당정 백기 전례없는 소급입법까지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5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3명부터 1인당 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이 적은 독신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하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정도면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 주장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인상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를 앞서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발표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을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강력 한 시정 내지는 원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도 "세금문제는 사실 국회의 존립근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의회가 생긴 것이 왕들의 세금부과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보호한 데서 발생한 것에서 보듯이 그만큼 세금문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동의한 증세도 사실

납부하려면 힘이 드는데 정부 발표와 다르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올해 분이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곧 연말정산 신고가 되고 정산이 되면 정부가 애초에 국민에게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에 대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해명에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더해 간이세율표 조정 때문에 체감 납부세액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 말씀은 자제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정부의 대응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haru@news1.kr

야 "연말정산 당정협이는 밀실논의"

(서울=뉴스1) 진동영, 서미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말정산 세부담 완화를 위한 여야와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 결과 발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협이는 밀실논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긴급히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연말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과 정부만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 아니라 야당과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를 대표할 대상으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세 문제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직장인 세부담 경감 뿐 아니라 법인세 감세 철폐 등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문제를 긴급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세부담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전경련 같은 거대 기업집단 협의체는 정부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요구 입법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세법심의과정에서 논의됐지만, 수백만 명의 봉급생활자들에

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그간의 과오를 납세자들에게 사과하고자 한다면 저희 제안대로 새롭게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소속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아직 새누리당에서 답이 오고 있지 않다"며 "당정협의도 끝났으니 이제 상임위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교육비·의료비는 기본경비적 성격인 만큼 소득공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분위별로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점검,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5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chindy@news1.kr

'세 폭탄논란'에 청 "세법개정 따른 착시현상"

"결정세액 변화없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저소득층 혜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는 20일 연말 정산 논란과 관련해 "원천징수 시스템과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면서 "절대 서민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천징수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세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더 떼고 더 돌려주는' 방식에서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을 바꿨고, 2013년엔 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면서 "이 같은 세법개정이 한꺼번에 나타난 게 이번 연말정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꾼 건 원천 징수 금액을 작게 해서 소비여력을 크게 만들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려는 취지였다"면서 "연간 결정세액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변화가 있다면 2013년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

제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 결과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세금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세액만 늘었다"면서 "고소득형 세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 세제 등의 명목으로 약 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건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이로 인해 연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었고, 5500만원 이하임에도 세금이 느는 경우는 교육비 등을 훨씬 적게 지출하거나 공제항목이 없는 경우, 독신의 경우로 이견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올해 2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세액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세액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세법 전환효과가 국세청에 계층, 연령대 등 별로 자료가 축적되면 원천징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irakoca@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야 "여, 자원외교국조 고의 허비하나"...여 "정치공세"

야, 여 권성동 간사 연이은 해외출장에 '의심 눈초리' 권 "기합의된 국조 일정에 전혀 차질 없어"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증인명단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국정조사 기간 100일 중 23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의결 이후 100일(여야 합의로 25일 한 차례 연장 가능)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4일 환경노동위에서 해외시찰을 떠나 21일에 돌아온 뒤 24일 다시 출국한다고 한다"며 "증인채택, 기관보고 일정, 기관선정 등 여야 간사 합의를 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대충 때우겠다는 여당 간사의 전략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권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언급하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유기림,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을 들어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며 오래 전에 예정된 상임위 일정을 문제삼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회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원외교 국조특위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단 한차례 간사 협의를 한 이후 추가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리 서로 만나 조율하는 일정이 필요하다. 간사조차 관심 없는 국정조사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 관계자는 "2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와 관련

한 기관증인을 의결할 예정이고 2월 9일부터 기관보고가 잡혀있어 환노위 해외시찰에 따른 국정조사 일정 차질은 전혀 없다"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현재는 기관보고를 앞두고 자료요구 등이 이뤄지는 기간이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관보고 이후 청문회) 일반 증인과 참고인 합의가 문제

이긴 한데 기관보고에는 기관증인만 나오면 된다"며 "기관보고가 끝나고 나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오히려 "우리는 기관보고를 2월 초에 빨리 진행하자고 했지만 홍영표 새정치연합 간사가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2월 8일 이후에 하자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true@news1.kr

김기준 "10대 대기업, 전체 법인세 13% 내면서 조세감면은 46%"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 가운데 조세감면 상위 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제정보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신고분(2012년 10월~2013년 9월말 결산법인)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 9조3197억원 가운데 공제감면 상위10대 대기업이 46%인 4조2553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 1000대 대기업으로 넓히면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의 79%를 차지한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2조1497억원)에 불과했다.

2012년도엔 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액 9조4918억원 중 41%인 3조9020억원을 받았고, 상위 1000대 대기업으로 하면 전체 조세감면액의 79%인 7조4772억원이 감면됐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이명박정부의 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분(6조6988억원)에 비해 2조6209억원(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원에서 36조7540억원으로 1.5%(552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 25%로 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1조8339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1%를 차지했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조세감면액

은 오히려 810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10%P 늘어난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액 비중은 33%에서 23%로 정확히 10%P 감소했다. 그러나 상위 10대 대기업은 전체 법인세 36조7540억원 중 13%에 해당하는 4조7993억원을 납부했다. 세금은 전체의 13%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절반에 가까운 46%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의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변화를 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 4대 소득공제(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는 2009년 5조9383억원에서 올해 5조1420억원으로 13.4%(7%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5.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물가가 15.4%, 명목임금이 25%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직장인의 4대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제도 축소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조세감면 상위 10대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직장인은 감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연간 4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액 10%만 줄어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중산층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

세월호조사위 규모 논란, 사퇴 공방으로 불똥

여 추천 황전원 "서영교 사퇴해야" 야 "사실 호도...황전원 자격없어"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사무처 구성 문제 등을 두고 뼈격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양상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새누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회의 사퇴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선정된 황전원 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의 사퇴 요구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날 황 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한다"면서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은 현재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준비한 4국 13과 120명의 사무처 운영계획을 실무자 중심의 팀제로 변경하고 특별조사위원회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저는 이 조직을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러한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선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의 구성은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대법원장, 세월호 유가족, 대한변협 추천 인사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법안에 맞춰 예산 추계를 냈고 추계는 기재위를 통해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많다"며 "황 위원은 정치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폄하하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으로 조사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명한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세월호 조사위원의 주장 대해서 격려나 칭찬은 하지 못할 망정 사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서 원내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위원은 "공당의 원내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사퇴 운운하는 것은 지시나 간섭을 넘어 협박으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짜 세금도둑은 30조원의 4대강, 50조원의 해외자원외교비리, 예측할 수 없는 방산비리 등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있으면서 했던 사자방 비리가 진짜 세금도둑"이라며 "진짜 세금도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ghwi@news1.kr

저희들은 가입에서 건강검진 및 그 기간 중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저희들은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적절한 건강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쉬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GetNetworkHealth.com 에서 확인하세요.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플랜의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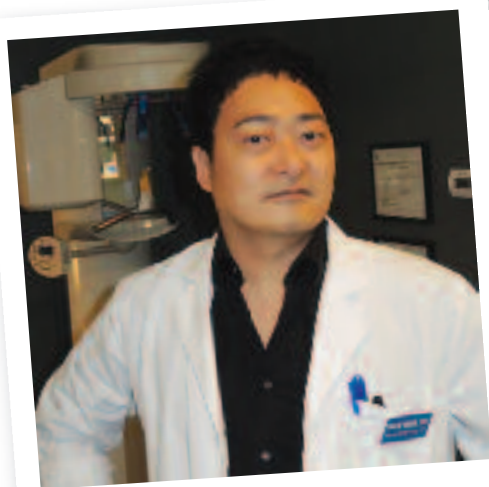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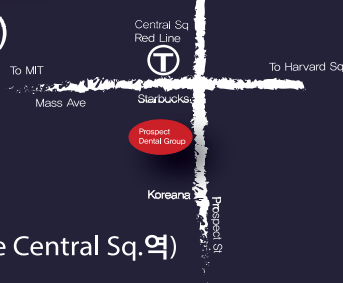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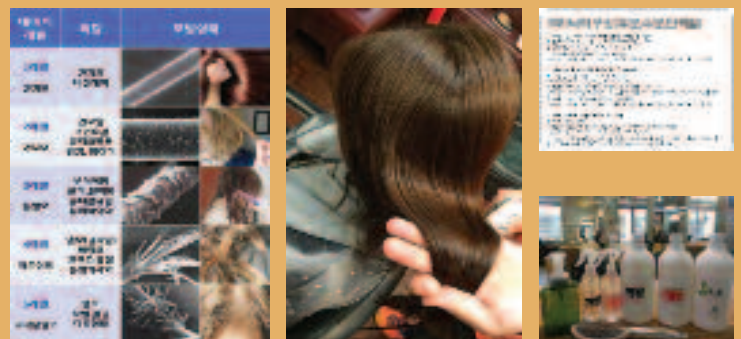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조응천 "박관천에 문건유출 지시 안해"...무죄 주장

22일 첫 재판한 경위 "최 경위에 문건 전달했지만 유출 인식 못해"

검찰 "대통령 친인척 비위 등 공개 우려 있어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자살한 최모 경위 등에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 측 역시 "최 경위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외부에 유출되리란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청와대 직원이 감찰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한화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한화 직원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확인해주는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경정 측은 "아직 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대통령기록물, 보안이 필요한 경찰 수사자료 등이 재판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사실 등이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문건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 전비서관 등에게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오전 10시45분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성도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희(60)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2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을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유출하도록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비서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 박지만 EG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이유를 묻자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재판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청와대 문건'

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희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고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희씨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회동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7차례에 걸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비서관의 지시 등에 따라 해당 문

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무고 등 4개 혐의, 조 전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전비서관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1@news1.kr

김형태 변호사 "수임료 1% 받았을 뿐...소명할 것"

"인혁당 사건 유족, 수임료 대신 기금 출연해 공익재단 설립"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과거 사 사건 부정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 김형태(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소환할 경우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36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2000년부터 2년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조사에 착수했던 인혁당 사건을 수임한 것이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혁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 컸다"며 "소송가액이 300억원이 넘었지만 나는 그 중 1%만 수임료로 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15~20% 정도 수임료를 받는 게 관례였지만 유족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내는 대신 배상액의 10%를 내 공익재단을 설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8인의 유족들이 소송 수임료를 내는 대신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것이 '4·9통일평화재단'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해명이다.

김 변호사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면서도 "검찰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소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같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된 이명춘 변호사 등 변호사 7명에게 소환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 등 6명이 민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hong87@news1.kr

검찰, 의문사·과거사 사건 수임 변호사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21일 출석 요구

(서울=뉴스1) 이훈철, 홍우람 기자 = 의문사·과거사 위원회 수임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소환 통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명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민변 출신)에게 21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과거사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소송가 총액 75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민변 출신 변호사 5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조사위원 활동 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을 맡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공안사건들을 재조사해 재심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은 현행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또 검찰은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변론을 맡아 수임료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관련 변호사들은 당시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소액의 수임료만을 받았으며 비리 의혹을 부인하는 등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boazhoon@yna.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 김형태 변호사(좌),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내정자 이명춘 변호사(우)



YOU CAN'T TURN BACK TIME

Improve your academic performance and test scores at TAHS to achieve your goals.

2015 Spring Step Up Academic Tutoring Program

FEB 7 - MAY 16

15 GROUP SESSIONS
10AM - 5PM

* schedule adjustable upon request

SUBJECTS

- English (2 hrs/wk)
- Math (2 hrs/wk)
- Science (2 hrs/wk)

available for 3-10th graders

Test Preparation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SAT class also available

* Subjects and tuition can be changed based on your needs and request. Please ask us for more details.



Past Students' Acceptances:

- | | |
|--------------------|---------------|
| T. Lee (Seoul) | Stanford |
| T. Kang (Newton) | Princeton/MIT |
| H. Kim (CA) | Harvard/MIT |
| J. Kim (RI) | U. of Chicago |
| H. Chung (Belmont) | Northwestern |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William Jameson (TAH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AHS helped me achieve great results in a very short time. TAHS gave me more than test preparation. Through support and encouragement, My TAHS mentor inspired confidence. Above all those things, the academy was more than a place to go and study, it was also a place for my bright future."

-V. Maeng (TAH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Harvard Square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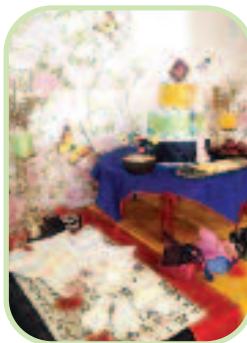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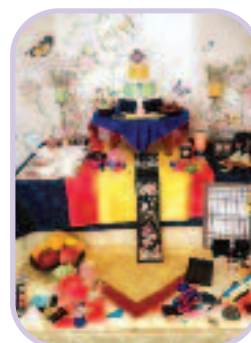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 Paulist Catholic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 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터테인먼트 & TV가 티브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와줍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시연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PGA

주니어 레슨
성인 레슨
그룹 클리닉
전지 훈련 (Florida)



CHARLIE CHI, PGA
PGA Professional

PGA Class A
IMG Florida Professional
JPGA & KPGA Teaching
Mini Tour Teaching



508.277.8247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 시호크스와 수퍼볼에서 격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고의 팀과 최고의 선수들이 맞붙는 수퍼볼의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AFC에서는 콜츠를 대파한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 진출하였고, NFC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시호크스가 패커스를 물리치고 수퍼볼에 올라왔다.

49회 수퍼볼은 오는 2월 1일, 애리조나의 피닉스 대학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각 컨퍼런스의 챔피언십 경기를 끝낸 두 팀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시즌 최고의 피날레를 위하여 연습에 한창이다.

본격적인 두 팀의 전력 분석에 앞서 이번 수퍼볼 경기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몇 가지 살펴보자.

패트리어츠 왕조

패트리어츠는 2000년대 초반 4년 동안 3번의 수퍼볼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2001, 2003, 2004 시즌에 수퍼볼 우승을 차지했으나 이후 10년 동안 수퍼볼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했다.

패트리어츠는 2007, 2011 시즌에 수퍼볼에 진출했지만 두 번 모두 뉴욕 자이언츠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최근 11시즌 동안 10번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했다.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 경기를 합쳐 2011년 이후 패트리어츠는 NFL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리고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다른 프로 스포츠에 비해 팀 간의 전력 편차가 잘 되어 있는 NFL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팀이 강력한 면모를 보인 적은 없다.

수퍼볼 2연패

시호크스는 작년 2월에 브롱코스를 43 대 8로 대파하며 수퍼볼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디펜딩 챔피언 시호크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수퍼볼에 진출했다.

수퍼볼 2연패를 노리고 있는 시호크스 이전에 수퍼볼 2연패를 했던 팀이 패트리어츠다. 패트리어츠는 10년 전인 2004 시즌에 수퍼볼 2연패를 달성했다.

전체적인 균형 vs 극강 수비

패트리어츠는 현재 NFL에서 가장 균형 잡힌 팀으로 꼽힌다. 공격이나 수비, 둘 중 어느 하나도 팀 순위 1위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격 부문 5위, 수비 부문 10위에 올라 있고 큰 약점이 없는 팀이다.

시호크스는 가장 강력한 수비를 구사하는 팀이다. 상대 팀에게 가장 점수를 적게 허용하고 있고, 러닝과 패스에 대한 수비가 모두 뛰어나다. 공격은 득점 부문이 10위에 머물고 있지만, 힘을



바탕으로 한 러닝 공격은 리그 최강 수준이다.

역전의 명수

패트리어츠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콜츠를 상대로 45 대 7 대승을 거두었지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다.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는 레이브스와의 접전 끝에 35 대 31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에서 패트리어츠는 두 번이나 14점 차이를 역

전하는 저력을 보였고, NFL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14점 차이를 두 번이나 역전한 팀은 없었다.

시호크스는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패커스에 시종일관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1쿼터에 이미 16 대 0으로 패커스가 경기를 앞서갔고, 시호크스의 쿼터백 러셀 윌슨은 중요한 경기에서 4개의 인터셉션을 범하며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시호크스는 경기 종료까지 2분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44초만에 터치다운을 2개나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했다. 결국 연장까지 이어진 경기는 시호크스의 승리로 끝났다.

두 팀 모두 10여점 차이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이번 수퍼볼 경기가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예상되는 이유다. jsi@bostonkorea.com

어린이 감기 후 소아마비와 유사한 마비 증세 확산

뉴욕 타임스 30개 주에서 103명 증세, 원인 몰라 단지 엔테로바이러스 68 발병 이후에 나타는 증세로 추정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세벽 기자 = 지난 가을 미국 전역에서는 호흡기 질환인 엔테로바이러스 68의 발병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응급실을 찾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많은 의료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여진으로 소아마비와 유사한 증상의 마비 현상이 발생해 전국을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미국내 34개 주에서 무려 103명의 어린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소아마비와 유사한 팔 다리 마비증세를 일으켰다. 일주일에 약 3건 정도로 아직도 미 질병통제센터(CDC)에 소아마비와 유사한 소위 급성이완성척수염(Acute flaccid

myelitis)이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질환이 지난 가을 미국을 휩쓸었던 엔테로바이러스 68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마비증세는 간혹 발생되어 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마비증세가 지난 가을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병했던 엔테로 바이러스 68을 가장 근사치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다.

갑작스레 자녀들이 마비증세를 겪게 된 수많은 가정들은 더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마비증세를 겪은 약 3분의 2의 어린이들은 일부 증세가 호전되고 있지만 3분의 1은 전혀 차도가 없다. 그 중 단 1명의 어린이만 완치됐다.

한 사례로 지난 8월 테네시 주 킹스포트에 거주하는 1학년 책 위닉은 약간의 감기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는 일반적이었지만 책은 오른 쪽 팔이 무겁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얼굴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오른쪽 발에 강력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8월 말 부모는 책을 테네시 칠드런스 호스피탈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이미 그는 팔을 들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사들은 그의 마비증세가 여느 신경학적 질환과 달랐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때야 비로소 신경외과 크리스토퍼 밀러 박사는 미 질병통제센터의 마비증세에 관한 전달문을 읽게 됐다.

현재 책은 여전히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리는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가 비록 적응을 하고 있지만 책의 부모는 앞으로 운동화 끈을 묶지 못하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그 부모의 말이다.

환자들의 부모는 하루 빨리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를 바라고 있고 연구진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엔테로바이러스 연관성을 의심하면서도 연구에 진척이 없는 것은 마비 증세를 겪고 있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은 한번도 엔테로바이러스 68에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진들은 기명의 어린이들

골수에서 엔테로바이러스나 다른 병원균을 발견해 내지 못했다. 소아마비의 경우 골수나 변을 통해 이 바이러스를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척추액 회백질이 바이러스가 아닌 면역체계의 반응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진들이 마비증세의 어린이들에게서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피속에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68 항체의 족적을 추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에 항체검사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과정은 엔테로바이러스 68이 일반인들과 21세 이하의 젊은 층들에게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실험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체가 많이 없는 경우 마비 증세가 있는 어린이의 항체와 마비증세가 없는 어린이의 항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마비증세의 어린이가 눈에 띄게 많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엔테로바이러스 68이 원인이라고

판다. 현재까지 항체 테스트가 끝났고 칠드런스 호스피탈 콜로라도의 연구진들은 이제 마비가 있는 어린이의 엔테로바이러스 68 항체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엔테로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인의 좋은 보조 자료일뿐이며 이 바이러스는 신경외과적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대학 메디컬센터의 신경과 의 벤자민 그린버그 박사는 면역체계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며 마비증세가 있는 어린이의 혈액이 실험실 운동뉴런에 손상을 입히는지 실험할 계획이다.

존스 홉킨스에서 마비증세를 겪는 어린이들과 같이 엔테로바이러스 68에 감염됐던 형제들과 유전자의 차이점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중 유전자 변이가 있었는지, 마비증세의 어린이들에게서 일련의 유사한 유전자 변이가 있었는지 연구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Hanca Education Center
한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 한카교육원은 간이식당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멀티미디어룸을 포함 9 개의 강의실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캐나다 최고의 교육도시
문화중심 도시 몬트리올!!
세계 최대 이중언어 도시
몬트리올!!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에서 불어공부하자!

몬트리올 유학은

-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한카교육원의 유학프로그램은 북미한인언론인협회(KAFA)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몬트리올 유학 프로그램의 특징



초중고 불어학교 / 영어학교 조기유학

- 불어학교 / 영어학교 또는 영.불어 통합학교 중 선택
- 숙소비, 학원, 학비, 홈스테이 비용 포함 관리 유학 연간 \$39,000(CAD)

불어/영어 단기유학

-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

tolerant friendly
Canada

불어 & 영어 여름 캠프 2015 June

- 몬트리올의 여름을 즐기며 배우는 불어









성인 불어/영어 직업교육(이후 이민가능)


- 부모 유학비자로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교육가능(EMS 교육청)

성인 불어/영어 연수

- 불어 교육청 / Language school / etc.

McGill University 입학준비반

- 세계 10대 대학,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





TALK 카톡으로 빠르게 상담하세요
ID : hanca3333

전통의 힘!! 새로운 힘!! 한카교육원도 전통과 창신정신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카유학원에서는 조기유학, 영어, 불어, 수학, TEFoQ 등 최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 Boul. Cavendish Suite 100, Montréal Québec, Canada H4B 2M5
한카 교육원 http://hancastudy.com

 **CEH** École de Langues/Mathématiques
HEC Language/Mathematic school
tel: 1.514. 600.3444
070.4498.1106
hancastudy@gmail.com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룹 / 2004년 개업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 에이전트 / 20여 개 언어 / 24시간 상담 서비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6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비즈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25,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1, No.4 January 23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영감민과 순두부찌개의 만남

인보스톤 (InBoston)

업소탐방 271

인보스톤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617-426-0785
inbk-kitchen.com

연타바 **730** (보통 730 Play)로 새겨드립니다. 더 좋은 서비스 하러오세요.

Welcome, **73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할인
보스톤코리아 TV 시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버클리 음대 맞은 편에 위치한 인보스톤(InBoston)은 매콤달콤한 한국식 양념 치킨과 칼칼한 순두부찌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식당이다. 지난 9월에 개업한 인보스톤은 인근 대학교 학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맛집이다.

한국에서 치킨 사업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박정흠 사장은 두 해 전 미국에 입성했다. 한국식 양념 치킨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외국인을 타겟으로 식당을 차렸지만 현재 80% 이상이 한국인과 중국인 손님이라고 한다. 역시 한국인들에게 치킨은 거부할 수 없는 음식인 듯하다.

한편, 외국인 손님들도 양념 치킨의 맛에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박 씨의 말이다. 처음에는 새빨간 양념에 겁을 먹기 일쑤지만 한 번 맛을 보면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맛에 흠뻑 빠질 수 밖에 없다. 매콤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달달한 것이 외국인 입맛에도 딱이다.

외국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양념 치킨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도 인보스톤의 잘 나가는 인기 메뉴다. “떡볶이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사 먹는 것처럼 맛있

기가 쉽지 않다” 는 박 씨는 떡볶이 양념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다. 이것이 인보스톤의 변하지 않는 맛의 비결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재료를 들여오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식당들이 직접 만든 양념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맛이 점차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그는 전했다. 한결같은 최고의 맛을 위해 박 씨는 한국에서 컨테이너 채로 양념을 주문한다.

한인들의 입맛에 꼭 맞는 친근하고 익숙한 양념으로 승부하는 인보스톤은 순두부찌개, 양념 치킨도 전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양념을 사용한다.

해물 순두부찌개가 테이블로 올라왔다. 새우와 오징어, 조개 등이 부드러운 순두부와 함께 어우러져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낸다. 순두부찌개에 빼놓을 수 없는 날계란도 함께 나온다. 화이트, 미디움, 스파이시, 엑스트라 스파이시로 맵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해물 순두부 외에도 야채 순두부, 소고기 순두부, 섞어 순두부가 있다. 가격은 모두 \$10.95다.

크게 양념과 후라이드로 나뉘는 인보스톤의 치킨은 웬이나 드럼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순살 치킨으로도 주문 가능하다. 소이갈릭, 와이드파이어, 크리스피(후라이드), 글레이즈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 접시에 \$10.95다. 사이드 메뉴로는 흰 무, 감자 샐러드, 감자튀김, 콜슬로우, 흰 밥 등이 있다(\$1.95).

인보스톤의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임 용 순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617)285-887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617-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B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창조경제위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978-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8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 앨버 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30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4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가유가	617-566-8888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국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루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세탁소판매, 스프링필드 근방
공장과 Drop, 연매상 \$700,000
T. 413-244-8347

B라인 뱅크, 2베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N[매매]
노래방매매(조지아 애틀란타)
현재 성업중이고 매상 좋고 단골손님 많은곳. 여도우미 있음, 룸 8개, 최고급 인테리어 (여도우미 두고 노래방 비즈니스 하시길 원하시는분 좋은 기회)
T. 770-283-9687

N[매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렌트 또는
매매 합니다 (하드러커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N[매매]
사우스 케롤라이나
지압집 급매
가격 \$35,000
T. 678-939-5153

N[매매]
스시 윙가게 매매
일년에 36만불 매상올린가게
사우스케롤라이나 오렌지버그지역
매매가 8만 5천
좋은위치, 좋은비즈니스
T. 803-760-9292

N[구인]
바이널사이딩 메케닉(준메케닉) 6개월
Job, 작업장소는 플로리다 임
T. 770-871-9049

N[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N[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메케닉,쿠루포함)
익스테리어+인테리어 기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노스다코다)
T. 651-329-3307

N[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N[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합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N[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코넬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다중인격은 모두 내 아이디어?”

이충호 트위터 글에 누리꾼 비난 확산



(서울=뉴스1) 온라인팀 = SBS 수목드라마 '하이드 지킬, 나'의 원작인 웹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의 이충호 작가가 MBC 수목드라마 '킬미힐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충호 작가는 지난 21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당당한 걸 보니, 아직 모르는구나. 곧 알려줄게. 본인이 도둑질한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던 사실을"이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이충호 작가가 링크한 기사에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에서 진행된 '킬미힐미' 기자간담회에서 지성이 다중인격 소재 드라마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이충호 작가는 지난 20일 지성과 현빈의 연기 대결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고 "다중인격장애를 겪는 남자의

인격(하이드)과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코미디는 내가 지난 2011년에 그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가 시작이다. 사회현상으로 포장하지 마라. 그저 아이디어 도둑질일 뿐이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킬미, 힐미'의 지성은 7중 인격인 차도현을, '하이드 지킬, 나'의 현빈은 이중인격인 구서진을 각각 연기한다.

이 작가는 '지킬박사는 하이드씨'를 포털사이트 다음에 약 3년 동안 연재했으며, 이를 엮어 지난 21일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그럼 지킬 앤 하이드는 뭔데?", "좀 어이없네; 다중인격 소재면 모두 다 당신 아이디어인가?", "에이 이걸 좀 아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하이드 지킬 나’ 작가 이충호, 킬미힐미에 “도둑질 드라마”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웹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의 이충호 작가가 수목드라마 '킬미힐미' 표절 의혹을 드러냈다.

이충호 작가는 21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당당한 걸 보니, 아직 모르는구나. 곧 알려줄게. 본인이 도둑질한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던 사실을"이라는 글과 함께 기사를 링크했다.

이어 "다중인격장애를 겪는 남자의 인격과 한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코미디"는 내가 2011년에 그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가 시작이다. 사회현상으로 포장하지 마라. 그저 아이디어 도둑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충호 작가가 링크한 기사에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에서 진행된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 기자간담회에서 지성이 다중인격 소재 드라마가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지성은 "작가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를 통해 아름답게 인생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하다"며 "요즘 뉴스를 봐도 웬지 뉴스를 안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소식, 상식 이하의 소식이 많아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가 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발 붙이고 살아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충호 작가의 의혹 제기에는 22일 '킬미, 힐미' 측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충호 작가의 SNS상의 글을 보고 황당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고 있고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자는 "'킬미힐미'는 지난해 1월 다중 인격 소재 드라마를 만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였고 '하이드 지킬, 나'는 몇개월 후인 지난해 가을에야 제작 발표를 했다. 그리고 저희는 발표 1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킬미 힐미'는 7개의 인격을 지닌 차도현(지성)과 비밀주치의 오리진(황정음), 추리소설가 오리온(박서준)의 이야기를 그린다. 동시간대 방송을 시작한 SBS '하이드 지킬, 나'는 한 남자(현빈)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한 여자(한지민)의 달콤발랄한 삼각로맨스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이충호 작가의 웹툰 '지킬 박사는 하이드씨'가 원작이다. soho0901@news1.kr

'강남 1970' 박스오피스 1위, '빅히어로'에 완승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영화 '강남 1970'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2일 오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봉한 '강남 1970'은 개봉 첫날 15만 2002명, 누적 관객 16만 2824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관람불가에 긴 러닝타임 등 불리한 조건에도 '강남 1970'은 같은날 개봉한 '빅 히어로'와 한 달 이상 1위를 지켜온 '국제시장' 등을 누르고 흥행 정상에 올랐다.

'강남 1970'은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리고 있으며 이민호와 김래원의 만남, 정진영, 김설현, 유승목, 김지수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했다.

특히 '강남 1970'은 한류스타 이민호의 스크린 컴백작으로 관심



을 모으며 아시아 및 유럽, 북미 각 지역에 선판매됐다.

또한 '강남 1970'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열한 거리'를 잇는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높은 기대를 모아왔다.

2위를 차지한 '국제시장'은 8만 9000명의 관객을 모으며 누적 관객수 1140만 5302명을 기록했다. 꾸준한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상위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겨울왕국'을 잇는 디즈니의 야심작 '빅 히어로

'는 7만 272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3위에 올랐다.

이승기의 스크린 데뷔작 '오늘의 연애'는 일일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하며 누적관객수 122만 4487명을 모았다. 5위는 '박물관이 살아 있다: 비밀의 무덤'이, 6위는 '허삼관'이 차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청소년 관람불가인데도 1위 했네", "와 나도 정말 보고 싶다", "우와 이거 예고편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왕의 얼굴' 시청률, 자체 최고 경신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왕의 얼굴' 시청률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일 방송된 KBS2 '왕의 얼굴'은 전국 시청률 8.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동 시간대 방송된 MBC '킬미, 힐미'는 9.5%, SBS '하이드 지킬, 나'는 8.6%였다. 이로써 '왕의 얼굴'은 자체 최고 시청률 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간대 3위로 남았다.

이날 '왕의 얼굴'에서는 선조(이성재 분)의 총애를 받는 김가희(조윤희

분)와 김도치(신성록 분)가 신경전을 벌이며 살벌한 궁중암투의 시작을 알렸다. 광해(서인국 분)는 새로운 조력자 허균(임지규 분)을 만나 여진족이 선조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암살 위기에 처한 선조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왕의 얼굴' 시청률에 누리꾼들은 "왕의 얼굴 시청률, 기록 경신했네", "왕의 얼굴 시청률, 오늘도 본방사수해야겠다", "왕의 얼굴 시청률, 더 높은 시청률 기록할 수 있기를", "왕의 얼굴 시청률, 여전히 수목극 짝사랑 슬프다" 등 반응을 보였다.

chaebin922@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1월 12일 ~ 1월 18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9.0%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7.9%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25.6%

4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9.3%
5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8.8%
6	MBC	MBC스포츠축구(아시안컵한국:호주)	18.0%
7	KBS1	KBS9시뉴스	17.6%
8	KBS2	해피선데이	17.2%
9	KBS2	개그콘서트	15.7%
10	SBS	정글의법칙(코스타리카)	15.5%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화	매드클라운
02	목소리	노을
03	위아래	EXID
04	LUV	Apink
05	광화문에서 (At Gwanghwamun)	규현
06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7	데자-부 (Deja-Boo) (Feat. Zion.T)	종현
08	GOOD BOY	GD X TAEYANG
09	Angel	윤미래
10	사뿐사뿐	AOA

숫자 퍼즐 (Sudoku)

5	7		2	9			8	
8		9			4			
			7					9
9	6	7	3		5			
			4		8	9	6	3
3					2			
			8			6		2
	2			4	6		9	5

1월 25일 - 1월 3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p> <p>● 운수: 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 금전: 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어계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출가분해되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모든 관계도 좋아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소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p> <p>● 운수: 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편을 짜야 합니다. ●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애정: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의 상대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p>	<p>범띠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p> <p>● 운수: 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 애정: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자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7, 30일 길일, 29일 주의.</p>
<p>토끼띠 아주 중요한 기로에</p> <p>● 운수: 행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어 적잖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3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용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p> <p>● 운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애정: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뱀띠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p> <p>● 운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구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 애정: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망망하고 좋은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30일 길일, 26일 주의.</p>
<p>말띠 지금은 때가 아니니</p> <p>● 운수: 직장상사나 동료 등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고 실패와 손해 보게 됩니다. 직접 부딪쳐서 얻은 산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다시 한 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31일 길일, 25, 27일 주의.</p>	<p>양띠 철저히 확인하고</p> <p>● 운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클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응통이 될 것입니다. ● 애정: 현재진행형인 상대와 새롭게 만남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원숭이띠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p> <p>● 운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전혀 조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 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루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7일 주의.</p>
<p>닭띠 가물에 단비가 내리는</p> <p>● 운수: 이렇까 저렇까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로 결정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 금전: 기다리던 매매가 성사될 것입니다. 가물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 애정: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9일 길일, 26, 27일 주의.</p>	<p>개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p> <p>● 운수: 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자식의 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 금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돼지띠 자신감이 샘솟는</p> <p>● 운수: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 금전: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마음을 연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을 한 순간에 다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또 운다 또', 국내 음원 차트 올킬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또 운다 또'가 각종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다비치의 신곡 '또 운다 또'는 22일 오전 9시 기준 음원사이트 엠넷을 비롯한 멜론, 지니, 소리바다, 올레뮤직, 벅스뮤직, 네이버뮤직, 다음뮤직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비치는 최근 열린 쇼케이스에서 "소속사 이적 후 발표한 첫 앨범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운다 또'를 들은 누리꾼들은 "또 운다 또, 노래 좋다", "또 운다 또, 역시 다비치", "또 운다 또, 다비치 노래는 다 좋다", "또 운다 또, 다비치 컴백무대 기대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wlsgml3135@news1.kr



B1A4, 日 랭킹 종합차트 싹쓸이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B1A4가 일본 타워레코드 예약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 20일 타워레코드에 따르면 B1A4의 5번째 싱글 앨범 '하얀 기적'(SHIROI KISEKI)은 예약랭킹 종합 부분 정상을 차지했다. 모든 싱글 패키지가 K-POP 차트가 아닌 종합 차트에서 1위, 3위, 4위를 휩쓸며 현지에서의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하얀 기적'은 감성적인 멜로디에 리얼 스트링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으로 일본 팬들을 위해 리더 진영이 작사, 작곡한 오리지널 신곡이다. 샷포로에서 촬영한 티저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 공개됐다.

한편 B1A4 멤버 진영은 Mnet 뮤직 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에 출연 중이



며 산들은 뮤지컬 '올숙업' 공연에 임하고 있다. 바로는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SBS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에 출연한다.

ppbn@news1.kr

이수 '나가수3' 강제 하차 논란 커져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이수가 '나는 가수다3(이하 나가수3)'에서 강제 하차를 당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수 소속사 뮤직엔뉴 관계자는 22일 "MBC가 '나는 가수다3'에 이수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사전에 언질이라도 줬으면 회의 끝에 이수와의 의견을 나눠보고 출연 고민을 해봤을 텐데 어제 녹화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갑작스럽게 사전 연락도 없이 기사가 나서 기사로 놀랐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나는 가수다3'에 출연 예정이

던 가수 이수 씨를 출연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며 "프로그램을 지켜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며 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고 발표했다.

이수는 지난 2009년 성매매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탓에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다. 그간 공연 위주로 활동을 펼쳐왔던 이수는 '나가수3'를 통해 6년 만에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내며 대중과 만나게 됐다.

이수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미디어센터 1층 공개홀에서 열린 MBC '나가수3'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청자들과 청중평가단

에게 노래로 평가받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이수의 출연 논란을 의식한 제작진은 결국 그를 하차하기로 했다.

lee1220@news1.kr



김장훈 공황장애 때문에 기내 흡연?

"변명의 여지없다" 사과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김장훈 공황장애로 인해 기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장훈은 지난해 12월15일 프랑스로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으며 이를 본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날 김장훈은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속 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chaebin922@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30 마지막 회)〉

훈족의 실체는 누구인가?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독일의 역사가 랑케는 모든 고대사는 많은 개울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듯 로마의 역사로 흘러 들었고 모든 근대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 나왔다고 하였다. 오랜 세월이 걸쳐 기록된 로마 제국의 업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말대로 로마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서로마 제국은 갑자기 하루 아침에 망해버렸다. 로마를 망하게 한 훈족의 침입은 유럽 역사에서는 정말로 획기적이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도대체 훈족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역사가 드 기뉴가 훈족의 원류가 흉노라는 흉노, 훈 동족설을 발표한 이래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1970년에 모리 마사오는 주로 동족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동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는 흉노의 중국식 발음은 ‘훈’이라고 하여 ‘훈’에 가깝게 들린다. 중앙 아시아 각지에서 흉노는 정복자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훈’족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고대 일본이 북방 기마 민족에게 정복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동경대학 교수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는 고고학 자료를 들어 동족설을 주장하였다. 동족설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모리 마사오의 주장처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필자는 이미 7회에 걸쳐 훈, 흉노, 신라, 가야의 친연성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에는 훈족의 지난 과거를 알아보기 위해 흉노와 중국 간에 수백년을 이끌어온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BC3세기부터 AD2세기 말까지 흉노와 중국은 끊임없는 소모전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흉노는 3번에 걸쳐 전쟁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의 예외 없이 서쪽으로 도주하여 아랄 해 부근의 중앙 아시아로 이주해가곤 하였다.

물론 일부는 동쪽으로 이주해서 신라 가야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고도 생각한다.

한무제 연간인 BC121년에 위청과 광거병이 흉노 좌현왕, 우현왕을 무찌르고 우현왕의 아들 김일제 모자가 포로가 된 사실은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장장 300년이 넘게 흉노와 한나라는 이기고 지는 소모전을 계속하였다.

10년 후 인 BC111년에 한나라 장수 공손하, 조파노가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흉노를 침공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BC103년에는 조파노의 3만명 군사가 전멸당했다.

BC99년에는 이광리가 흉노와 싸워 패전했고 이릉(李陵)은 흉노에게 사로잡혀 버렸다. 이릉은 후일에 탁발 선비의 시조가 되는데 탁발 선비는 흉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여 흉노를 중국 북방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한 민족으로 고구려와 자웅을 겨루던 북위를 세운 민족이다.

이릉은 젊은 시절부터 이사 장군 이광리와 함께 흉노 전쟁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흉노의 배후를 공격하다 오히려 흉노에게 포위되어 세가 다하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흉노에게 항복하였다. 흉노 선우가 자신의 탁발 공주를 이릉에게 시집보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이 탁발 선비의 시조가 되었다.

BC97년 이광리가 24만의 대군으로 출병했지만 대패하고 이광리도 사로잡혔다. BC87년 한무제는 흉노 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유한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였다.

BC71년과 BC68년에 몽골 초원에는 대규모 흉수와 폭설로 인하여 수 많은 흉노 족이 목숨을 잃고, 업진데 댈친 격으로 북쪽의 정령(돌궐), 서쪽의 오손, 동쪽의 오환이 흉노를 공격하였다.

흉노 호연제 선우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떠나버렸다. 이것이 흉노의 1차 서천이다.

한나라 선제(BC74~BC49) 때 흉노는 호한야 선우의 동흥

신라 가야와 훈족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유물과 풍속

- 1)동북
- 2)적석 목곽분
- 3)장례절차
- 4)순장 풍속
- 5)편두
- 6)몽고반전
- 7)마구(말안장, 발등자)
- 8)철
- 9)각배
- 10)장식보검
- 11)로마식 유리그릇

노와 질지 선우의 서흉노로 양분되었다. 동흉노가 한나라와 연합하려 서흉노를 공격하자 질지는 자기를 따르는 3,000명 정도를 이끌고 서쪽 강거 쪽으로 이주하였으니 이것이 2번째 서천이다.

후한 광무제 때 흉노는 선우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포노 선우의 북흉노와 일축왕 후호한야 선우의 남흉노로 갈라진다. 남흉노는 동한(東漢)과 연합하여 북흉노를 공격하였고 동한 장제 때(AD94) 두헌 장군이 북흉노를 격파하고 선비족 단석괴가 북흉노를 쫓아 서역으로 밀어냈으니 이것이 3번째 서천이다. 흉노는 서쪽으로 밀려난 후 100여년이 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400년이 더 되는 긴 세월을 한나라와 끊임없는 소모전을 치른 경험을 살려 백여년 동안 힘을 비축한 것이다.

중앙 아시아로 옮겨간 흉노의 서쪽에는 강거가 있었고, 남쪽에는 월지국이 있었지만 흉노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었다. 휴식 중에도 흉노는 강거를 넘어 서쪽의 알란족과 국경을 마주하였다.

흉노가 강거로 진입하자 알란족은 흉노에게 밀려 서쪽으로 이동하여 흑해 북안 돈강의 동쪽부터 아랄 해까지를 영토로 삼았다.

알란족은 흉노와 같은 유목 민족으로 기마에 능했고 소와 말고기와 유제품을 주식으로 하는 용감한 민족이었다. 알란족에 대한 훈족의 공격은 AD350년에 시작하여 AD375년에 끝이 났다. 돈강 동쪽 지역은 모두 훈족의 영토가 되었고 훈족의 세력은 알란이 합세하면서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돈강 서쪽에 살고 있던 사르마트 족은 힘 없고 약한 민족으로 훈족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사르마트 족은 용맹한 스키타이 족과 아마존 여인국이 예전에 집단 결혼해서 생긴 민족이었다. 스키타이가 중앙 아시아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아마존 부족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한바탕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후에 스키타이가 얻은 수확은 적군의 시체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들 시체들은 하나같이 오른쪽 가슴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아마존은 여인국이었고 군사들은 모두 여자였던 것이다.

희랍어로 마조스(mazos)는 유방을 의미하고 ‘a’는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로 아마조스(amazos)는 유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마존은 여자들만의 여인국이라는 뜻이다. 희랍의 유명한 의사이며 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 아마존 여인들을 기록하였다.

“아마존 여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딸의 오른쪽 유방을 붙여 지저 없애 버렸다. 이는 오른쪽 유방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오른쪽 어깨와 팔로 모든 힘을 더 집중시키려 한 것이다.”

훈족은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현지인과 통혼을 통해 이민족과 융합을 시도하였다. 사르마트를 격파한 다음에 아마존의 여인들이 훈족의 자손들이 번창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이제 훈족은 우크라이나 초원의 동고트 제국, 서고트 왕국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동서 로마와 자웅을 겨루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흉노가 훈족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역사 기록에 근거하여 전개해본 것이다. 확실한 사실은 훈족은 아시아에서 온 기마 유목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서기 4-5세기에 아시아 유목민으로 중앙 아시아에 진출한 민족은 오로지 흉노 뿐이었다. 돌궐족 역시 이곳에 출현하지만 아주 훗날의 일이다.

신라, 가야는 훈족과 조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훈족의 본태는 아니었다. 흉노가 훈족의 원류였다.

저자주: 이상으로 ‘김씨의 뿌리’ 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애독해준 독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한 달 후에는 찬란했던 ‘신라 황금 문화’ 를 가지고 독자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관광 서비스 의료관광 'HURAM'

어느때부터 의료관광 (Medical Tourism)이란 단어를 매체들을 통하여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이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의 경쟁력을 토대로 이명박정부때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인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외국인 유치사업)을 선정하였고, 2009년 5월 1일 개정 의료법의 시행으로 의



료관광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발 맞추어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를 해온 의료관광전문 유치업자인 HURAM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08년부터 미국 달라스를 포함한 북미 8개 대

도시권 내 한인 및 여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의료검진 서비스를 진행해 온 '휴람'은 2012년 2월 독립법인을 설립하며 북미를 포함한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 20여개 지역 담당자들의 운영능력을 합쳐 보다 안전하고 고객의 NEED를

충족시켜주는 종합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들 유치업자라고 하면 브로커로 인식을 하여 HURAM을 통하여 의료관광을 진행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HURAM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국내고객과 동일한 비용 또는 이벤트를 통한 저렴한 비용에 의료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보호자 입장에서 고객의 NEED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 퀄리티 및 비용대비 효율성 있는 병원을 선정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HURAM을 통한다면 의료의 퀄리티, 비용, 시간, 신뢰,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 받을 수가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의료관광은 타 지역에서 의료를 행해야 하므로 현지 의 믿을 수 있는 의료경험이

많은 HURAM과 같은 의료관광 유치업자가 필요한 것이다.

휴람의 네트워크는 의료(종합수술, 검진, 성형, 여성성형, 남성성형,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피부관리등) + 관광(숙박, 여행, 기타등) 등이 이용 가능하다.

- 휴람 이용 절차**
- 1) 1차 현지 접수 상담
 - 2) 휴람 전문 상담자가 현지 직접 예약 및 상담 (전화/이메일/카톡등)
 - 3) 전문 의료기관 연결
 - 4) 사후 관리
 - 5) 휴람 지역 운영자 불만사항 처리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을 통해 휴람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보시고 경험해보시길 추천한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도안이 왔다면?

1. 안경렌즈 교체 (1시간) 25만원 → 20만원

2. 400도 안경/수술 렌즈 교체 (1시간) 200만원 → 170만원

3. 백내장 수술 (1시간)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개선, 불임증, 요실금, 난임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수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수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00도 이하 남/남/남/남/남/남)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배뇨장애 + 방기장애 + 정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에 80만원

이윤수 & 조성원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윤곽	안면윤곽 (개도)	배우 리프트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쌍안검	쌍안검	쌍안검 (개도)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신영의 **세상 스케치**

48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행복으로 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때로 답이 궁색해 지기도 한다. 물론, 행복이란 이 지구상의 얼 굴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고 각양각색일 거 라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도 도대체 내 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이며 내가 누렸던 행 복은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 나고 있는 행복은 또 무엇인가 잠시 깊은 묵 상의 시간을 가져본다. 나는 진정 행복하긴 한 것인가 아니면 행복마저도 체면 따위나 남을 의식해 행복한 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잠시 깊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고 대면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의 내면을 며칠 깊이 들여 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것이 있었다. 나 자신이 적어도 행복이라는 것을 내 방식으로 정의할 하자면 우선 내가 먼저 마음에서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가 만히 생각하니 그 어떤 일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한 번 해보자'라는 것이 늘 나의 선택이었다. 그것이 바로 결과야 어찌됐든 과정이 즐겁고 후회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누군가에 떠밀려서 무엇인

가 억지로 하는 것은 고통이고 고문일 수밖 에 없는 일이다. 적어도 내 의사를 표혀하고 내가 선택했음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 고 원하는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 게 할 수 없음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던가. 우 리가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서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 인 것처럼 싫은 일을 선택하는 것 또한 나의 선택인 것이다. 이것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 사 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다. 그 선택한 일이 힘들고 쉽고는 나중 문제인 것이다. 설령, 일 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내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녀석함과 여유를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또한 행복이지 않을까 싶다.

행복의 조건은 모두에게 다르고 원하는 행 복의 색깔과 모양도 모두가 다르다. 남의 행 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할 거리는 사 실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 이 때로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삶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다름 뿐임을 인정하 면 되는 것이다. 어느 사람은 가족을 위해 휴 일도 없이 일하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가고

일밖에 모른다는 소릴 듣는 경우가 있다. 그 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의 한 단편이고 단 면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으 로 그 사람이 휴일이 없다고 해서 여행을 제 대로 못 간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다는 것 이다.

우리는 가끔 삶의 오해를 하며 산다. 행복 의 반대는 불행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며 산 다는 생각이다. 내가 부자 부모의 자식이 되 지 못했으니 내가 배우지 못한 무지렁이 부 모의 자식이 되었으니 등 자신의 환경만을 탓하다 보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해지고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빈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내 마음에서 출렁거리는 마음의 불평들이 늘면 내 행복은 숨어버 리기 마련이다. 남은 행복마저 찾을 길이 없 어진다. 그 부자의 자식인들 그 배움이 많은 지식 높은 자식인들 자신의 고민이 없을까 말이다. 남과 비교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불 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산다. 자신의 삶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그것만으 로도 부족해 다른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인생

에 감 나라 대추 나라 하니 참으로 우스운 광 경이 아니던가. 그 사람이 선택한 삶에 대해 그저 존중해주면 되는 것이다. 남의 눈에 보 이기에 설령 그 사람이 불행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편견일 뿐이다. 그 누구의 삶에도 타인이 간섭할 이유는 없으며 더욱이 권한은 없는 까닭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삶이나 되돌아보던가 아니면 앞으로 삶의 계획을 위해 오늘을 잘 챙기고 살던가 말이다.

결국,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담겼다는 생 각을 한다. 어느 사람은 물결 중간쯤에 담긴 물을 보며 '아직 많이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같은 것을 보고 '벌써 이것밖에 남 지 않았네'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행복의 열쇠'는 아닐까 싶다. 저 높은 정상을 바라보 며 산을 올라가는데 어느 사람은 산을 오르 는 내내 '어떻게 정상까지 가겠어' 하며 앞뒤 사람에게까지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우리 열심히 다같이 '함께 정상에 한 번 올라가 보자'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 차이에서 정상을 오르고 못 오르고를 가늠할 때가 있다. 그렇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긍정의 마음'인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국제시장**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고은 시인의 시다. 비로소. 제목은 간결한데, 뜻은 깊다. 바로 앞세대일 게다. 어렵게 노를 젓고 저어 물살을 헤쳤을 것이다. 그런데 노 를 얼마나 자주 놓쳤을 겐가. 얼마나 황당했 을 겐가. 얼마나 절망했을 겐가. 얼마나 캄캄 했을 겐가. 배 안에 타고 있던 뽕망한 아이들 눈동자는 여전히 맑기만 했을 텐데, 뒤돌아 본 물이 넓었을 터. 눈 앞에 보이는 물은 더 넓고, 더 사나웠을 게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보았다.
(고은, '비로소')

복고가 우세한건, 현실이 팍팍하기 때문이 란다. 뒤를 돌아다 보는건, 노를 놓쳐버려 황 당한 때일 게다. 세상살이가 팍팍한 분들에

겐 매우 죄송하단 말씀을 전한다. 뒤따르는 세대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가 히트하면, 이런저런 해설과 평론이 붙는다. 영화와 문화평론가 뿐아니다. 사회 학자들도 덩달아 나선다. 아마추어 문화평 론가로 나도 한 몫 거든다. 한국영화 국제시 장이다.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내 코가 벌써 싸아해졌다.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일테고, 뒤 에서 옆에서 지켜보았고 자주 들었다. 내 외 삼촌의 이야기이며 내 고모네 가족 이야기 인게다.

어머니는 자주 이야기 했다. '네 고모는 국 제시장에서 세탁소를 했거든' '그나마, 벌 이가 괜찮았지' '덕분에 네 형은 고모가 잘 챙겨줬지' 그러니 국제시장이란 단어가 내게 그닥 생소한건 아니다. 여러 번 같은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뿐만 아 니라, 친가와 외가 모두 피난민이었다. 내 외 가는 범천동 산기슭에 피난민 보따리를 풀었

고, 고모네는 국제시장 한 구석에 터를 잡았 던 모양이다. 우리는 어디 대신동이라던가. 남의 집 문간방을 간신히 얻었다. 세월이 흘러 찾아갔던 외가집 다락이었다. 멀리 내 려다 보이던 부산항구가 회색으로 눈앞에 어 른거린다. 흑백사진처럼 흐르는 듯, 맑은 듯 흐린듯 보이는거다. 굵지만 낮은 뱃고동 소 리도 들렸다. 갈매기도 울었던가. 돌아와요 부산항이다.

내 외가는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인데, 외할 아버지 손에 끌려 온 식구들이 부산으로 피 난을 갔다. 외삼촌은 산복도로를 따라 올라 가던 그 동네에서 다 클 적까지 보냈다. 그러 니 외삼촌은 진작에 부산갈매기가 되었다. 황해도 액센트도 부산지방 억양과 섞여 묘한 발음으로 변했던 거다. 부산 사투리 툐이 더 세계 들리니 국제화 된 것인지, 국제시장화 된건지. 외삼촌도 말할게다. '부산에 살면 부산사람이지.' 그런 외삼촌은 롯데의 왕팬

이다. 뺏속까지 부산갈매기 되었다. 보스톤 레드삭스 팬 마냥 롯데 팬들도 대단하다 들 었다. 하긴 부산사투리 듣고 있으려면 귀가 먹먹해 온다. 갈매기 떼가 동시에 울면 시끄 럽다. 귀가 무지 따갑다.

외삼촌도 영화를 놓쳤을리 없다. 아니면 아 예 외면했을 수도 있다. '뭘 뻔한 이야기인 데, 나도 많이 고생했다 아이가' 내 외삼촌 목소리가 부산 액센트에 실려 귓전에 울린다 . 외삼촌이 조용히 소꿉잔을 입에 털어 넣을 게다. 이날 만큼은 황해도 억양이 더 무겁게 실려있을터.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예' 내 외삼촌이 내 외할아버지 기일에 한 마디 되뇌이는 말일 게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 하고 신실한 종아.' (마태 25:21, 새번역)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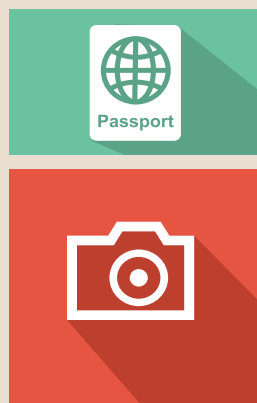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5 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최흥희崔熙熙 장군의 오도관吾道館에는 남태희를 비롯하여 백준기, 한차교, 우종림, 고재천, 김석규, 곽근식 등 청도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도사범은 손덕성, 현종명 등 청도관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현종명은 1954년부터 10년간 오도관 수련생들을 지도하며 관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는 최흥희가 청도관 명예관장으로 재직할 것과 관계가 있다는 후문이다.

오도관은 최흥희가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 대통령의 휘호를 받아낸 1955년을 기점으로 순풍에 돛단 듯 발전을 거듭했다. 최흥희는 태권도를 전군全軍에 보급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당수도 도장 간관을 태권도 도장으로 바꾸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장병들이 경례를 할 때는 '태권'이란 구호를 외치도록 하였다.

특히 월남전쟁으로 1960년대 초부터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것을 계기로 오도관은 민간 도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관세館勢를 확장시켜 나갔다. 태권도 교관단 파견은 1962년 12월 남태희를 단장으로 김승규, 정영휘, 추교일 등 4명이 파견된 이래 1973년 3월 12일 철수할 때까지 657명의 유단자를 파견했다. 역대

태권도 교관단장은 남태희, 백준기, 최동희, 김석규, 고재천, 김봉식, 정병길, 김승규 등 청도관 출신이 그 축軸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도관은 태권도를 수련하고 입대한 유단자 사병들 중에서 청도관 단증만 인정하고 나머지 단은 '민간단'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승단심사를 해서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5대 문과를 비롯한 여러 민간 도장들과의 첨예한 대립을 유발하였다. 이에 대해 최흥희는 후일 해명하기를 "오도관이 '형제관'이라 할 수 있는 청도관과의 잦은 교류로 기본 동작과 형제(품새)의 수련체계가 같았으나 무덕관, 지도관 등의 민간도장의 수련체계와는 달라 군軍에 맞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도관은 최흥희가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을 창설한 후 일탈행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급격히 퇴조하였다. 그 후 현종명, 광병오, 백준기 등이 관장직을 맡으며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다음에는 강덕원講德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덕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어수선한 시

기인 1956년에 YMCA 권법부에서 수련한 흥정표와 박철희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초대 관장은 흥정표가 맡았다. 강덕원이 창설된 근본적인 배경은 YMCA 권법부 창설자인 윤병인 관장이 납북된 이후 권법부를 재건하려던 이남석, 김순배와의 갈등으로 파생되었다. 이에 대해 강덕원 2대 관장을 역임한 박철희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조직이 흩어졌을 때 YMCA 권법부라는 본 줄기에서 창무관이 먼저 가지를 뺐은 것이고, 그 후 강덕원이 가지를 뺐은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말해 창무관의 분관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1956년 서울 신설동에 도장을 마련한 강덕원은 배풀/익힐 '강講'에 큰 '덕德'자를 써서 '덕을 가르치고 익히는 집'을 표방했다.

강덕원은 1950년대 중반에 창설된 신생관新生館이어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초창기 관원은 이금홍(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역임)과 후일 대한태권도협회 5대 회장을 맡아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크게 도약하는데 발판을 마련한 김용채를 비롯해 정화, 이정후, 이강희, 한정일, 김병수, 지승원, 임복진 등이었다.

강덕원은 이후 창신동-청진동-서대문-서울운동장-서대문로터리 등으로 도장을 옮기다가 이금홍이 3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인사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는 강덕원 무도회(강무회)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다음은 한무관韓武館에 대하여 알아 보자. 1956년 8월 이교윤 관장이 창설한 한무관은 195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신생관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조선연무관 관장이었던 전상섭이 한국전쟁 때 납북된 후 조직체계가 흐트러지면서 이종우가 지도관을, 이교윤 자신은 한무관을 개관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무관의 뿌리는 지도관이 아니라 조선연무관이라는 게 이교윤의 주장이다.

당시 한국체육관은 권투, 유도, 레슬링, 역도, 펜싱 등을 가르치는 종합체육관이었다. 이 체육관의 부관장이었던 이상목의 허락을 받아 한국체육관에서 임시방편으로 태권도(당수도)를 가르친 이교윤은 1년만에 200명 이상의 수련생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종우와의 갈등이 증폭되자 이상목의 제의로 당분간 태권도 지도를 중단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색도시의 그림자, 그리고 용산 참사 6주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1893

1893년 5월 1일 시카고, 유럽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딛은 1492년으로부터 4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가 열렸다. 시카고 만국박람회 때는 페리스 휠(Ferris Wheel)이라는 초대형 원형 관람차가 처음 등장했다. 대관람차의 등장은 사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처음 등장한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을 덕에 자극된 "과시욕구"였을 것이다.

만국박람회는 이어나 저러나 "과시용"이다. 시카고는 1871년 대화재라는 참사를 겪었다. 3일 동안 계속된 화재로 인해 수백명의 인명을 잃고, 숱한 기간 시설과 자원이 전소되었던 바로 그 도시는 대참사 사고 직후 재건축에 매진했다. 20여 년이 지났을 때 시카고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시카고의 만국박람회장은 새로운 시카고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도시의 재건축 과정에서 결집된 디자인과 건축 역량, 그리고 재원을 쏟아부었다.

만국박람회 행사장은 오로지 박람회를 위해 600에이커의 부지에 200개가 넘는(일회용) 빌딩을 새로 건설한 도시 속의 꿈의 도시이자 쇼케이스였다. 메인 행사장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상징하는 인공호수가 만들어졌고, 그 호수의 정면에는 "The Republic"이라는 이름이 붙은 황금색(동을 도금한 작품이다) 여신상이 풍요로운 국가의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이 호수의 양편은 대칭미, 균형미, 그리고 웅장미

를 강조한, 일명 "보자르(불어로 Beaux Arts라고 쓰고 예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식 흰색 벽토를 바른 새하얀 건축물(프랑스 신고전주의 건축물)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게다가 밤이면 전등 빛으로 새하얗게 빛나던 이곳, 시카고 만국박람회장은 말 그대로 "백색 도시 White City"였다.

백색도시의 꿈, 그리고 도시 미화 운동(City Beauty Movement)

사실 건축가 다니엘 번햄(Daniel Burnham)과 프레데릭 올름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가 설계한 이 전시용 도시는 "도시는 이러해야 한다"는 건축가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었으면서 다른 도시, 다른 건축가들에게는 도시 건축의 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혁신주의 시대를 다루는 많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듯이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등장한 "백색도시"는 1890년대에서 1900년대에 이르는 짧은 기간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도시 미화 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의 상징적인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의 도시 미화 운동은 협소한 의미에서는 도시에 아름다운 공원이나 정원을 도입하고, 넓고 협소한 도로나 건물을 재건축하고, 도시의 상징물(Monument)을 세우는 등 도시의 외관을 바꾸자는 운동이다. 가령 1901년의 맥밀란 플랜은 수도 워싱턴 디씨의 모습을 바꾸었다. 워싱턴 기념비(The Washington Monument)와 링컨 기념관(The Lincoln Memorial)을 세우

고, 빈민촌을 철거하고, 19세기 동안 난개발된 내셔널 폴을 탁트인 모양새로 반듯하게 재정비했으며, 라파예테 스퀘어와 정부 청사 건물 근방에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오피스 빌딩을 새로 짓고,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도시의 외양이 웅장하고도 시원스럽게 변모했다. 사실 도시 미화 운동은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영감뿐만 아니라 "혁신주의"(Progressivism)라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도 관련 있다.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열망은 외관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뽐내는 도시 속에서 사회 질서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외양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만으로는 혁신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도금시대(Gilded Age)에 발생한 각종 사회, 도시, 경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제시"에는 이를 수 없었다. 첫 번째는 도시에 미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가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둘째, 도시는 도시 전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라는 단순한 사실이, 개혁가의 거대한 이상에 묻혀졌다. 그래서 "더러운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려는 시도"라는 통렬한 비판이 나왔다. 가령, 도시 슬럼의(당연히 인종적으로 혹은 사회 계층적으로 마이너리티였던) 가난한 거주자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방식은 도시의 미관이라는 정당성 아래

부정당하고 밀려났다. 이주 대책없이 빈민 주택이 대규모로 철거되었을 때, 가난한 도시 거주민들은 그야말로 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미관을 위해 도시 단기간에 걸친 새로운 건설 붐은 결국 국 부동산 개발업자, 토지 소유주, 건축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이익을 낳았을 테지만.

데자뷰: 용산참사 6주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던 용산 재개발과 관련 이주, 보상 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들과 이를 과잉진압하던 경찰 사이의 충돌로 여섯명의 생명을 잃게 된 2009년 1월 용산참사로부터 6년이 흘렀다. 디자인이 살아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랜드마크 건설에 매진하던 이전 서울 시장, 용산역 역세권을 "크고 아름다운" 국제 업무지구로 바꾸는 사업을 승인했던 전전 서울 시장, 대규모 사업의 잇권을 위해 매진했던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재개발될 용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초고층 건물의 청사진이 생각난다. 무산된 사업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철거민들의 삶은 추락했다. 그리고 용산의 비극은 한세기 전 도시 미화 운동을 섬뜩하게 추억케 한다.

참고도서:

박진빈 저, (백색국가 건설사: 미국 혁신주의의 빛과 그림자) 도서출판 앨피
William H. Wilson 저, (The City Beautiful Movement: Creating the North American Landscape) 존스홉킨스대학 출판부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정밀	120만원 → 91만원	136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9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식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원본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학 인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띠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띠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띠끄만의 특별한 관리로 사년의 흐름을 잠시 멈춰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보스톤 한인사회에 감사함을 전하며

글 / 최혜현

우리 가족에게 지난 2014년의 해는 악몽의 해였다. 운명의 신은 우리 가족의 17년의 어려움도 부족했는지 또 한번 시련을 준 것일까? 17년간 도요타 소송을 종지부 찍기 위해 지난 7월 8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남편이 9월 중순에 황달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 말기라 한다. 1997년 6월 30일날 일어난 나의 교통사고 진실을 파헤치며 17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세 아이들을 돌보아온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 시한부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남편의 17년 동안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그의 병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터 우리 가족은 패닉에 빠지고 남편이 하던 일은 그대로 딸 아이에 넘겨져 딸 아이는 하루가 멀게 울며 엄마와 아빠를 돌보기 시작했다. 두 아이들도 학교를 쉬고 집안 일을 돌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와중 도요타는 이 케이스를 없애라고 법원에 모션을 내고 우리는 케이스를 없애지 않고 자료를 보충해서 새로 모션을 내겠다고 맞붙었다. 남편의 병과 도요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10일 청문회를 했다. 남편은 키모 머신을 어깨에 매고 힘든 몸으로 법정에서 출두해서 이 케이스가 왜 이렇게 오랜 세

월을 걸리고 있는지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판사에게 설명하였다. 그 시간은 키모약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라 법정에서는 키모약이 다 끝남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 운명의 신은 우리 편이 되어 주었다. 판사는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케이스는 잠시 쉬고 있는 셈이 되었다.

현재 남편은 수십번의 방사능과 3차레 키모를 했다. 30번도 넘게 간병원행은 늘 혼자 다니고 있다.

아내가 멀쩡하여 간병을 받아도 견디기 힘든 투병생활이지만 아내의 간병 없이도 소리 없는 남편의 투병 생활은 또 한번의 감동이다. 진실로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목숨과 바꾸는 일에 0.1%의 주저함도 없겠지만 말이다. 지난주 주치의는 단 한번 새로운 약의 투입을 했을 뿐인데 암 세포가 줄어들고 있다고 흥분했다. 병원검사 한다고 하도 굶어 많은 체중을 잃었지만 잃어버린 체중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남은 키모를 잘 마칠 것이다.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란 아주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때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만 아보는 격려의 편지와 성금들에 우리 가족은 숨죽여 울고 힘을 내고 있다. 오늘은 렉싱턴 성요한 교회에서 매주 오시는 봉사팀이 오셔서 남편

음식과 집안청소를 해주셨다. 더불어 성금도 주셨다. 또 스톤햄 안식일 교회에서도 많은 음식과 청소를 해주시고 베드포드 말씀의 교회에서도 항상 푸짐한 음식을 가져 오신다. 또 얼마 전에는 흙킨톤 보스톤 장로교회에서 성금도 보내 오셨다. 그리고 보스톤 지역 서울대 동창회, 앤도버 북부 보스톤 한글학교, 북부 보스톤 골프회 등에서도 성금을 보내오셨다. 또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짐을 놓아 주시는 감사한 분도 계시고 법적인 일을 도와주시는 감사한 분도 계신다. 그밖에 지면에 할애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금과 격려의 편지, 카드를 보내오셨다. 나는 너무도 고마워서 매일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말 한인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물 한잔도 남편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나는 심장이 터져 죽어 버렸을 것이다.

남편 발 한 번 주물러 주지 못하는 어려운 나의 현실이지만 따뜻한 한인사회의 사랑은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아무리 지독한 암세포일지라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 앞에선 맥을 못추지 않겠는가? 보스톤 지역 그리고 타주에서 보내 주신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며 이렇게 모아진 마음은 기적을 이루리라고 믿어본다. 요즘 고통이란 것은 승부라도 내지는 듯 달라붙어 있다. 딸 아이가 사는 게 고통이라 말하길래 나는 사는 것은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너의 존재를 진실로 알게되는 계기로 만들라고 말해주었다. 다시 한 번 한인사회에 깊은 감사말씀을 올리며 남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면을 통해 보스톤코리아에게도 감사사를 올린다.

Ps) 췌장암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Haehyun Choi
50 Memorial rd, apt 18-C
Somerville, MA 02145
781)861-6308
yellowchoi@gmail.com
www.choifive.net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한가격
\$29.99

구입 문의 **617-955-9112**

최고급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se Glass

특수 가공 두께로 0.4mm의 두께로 쉽고 간단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액정화면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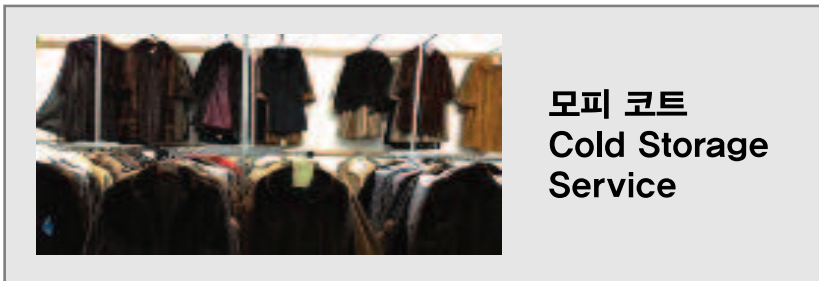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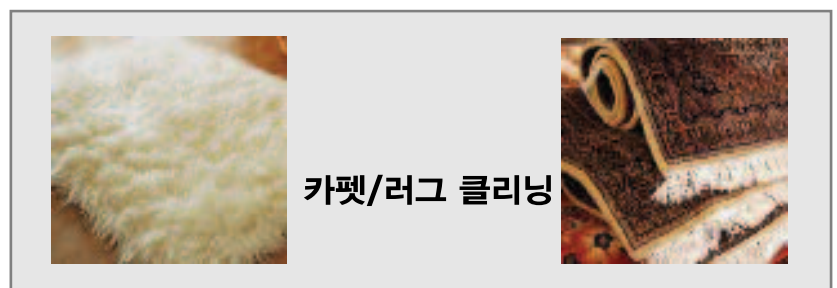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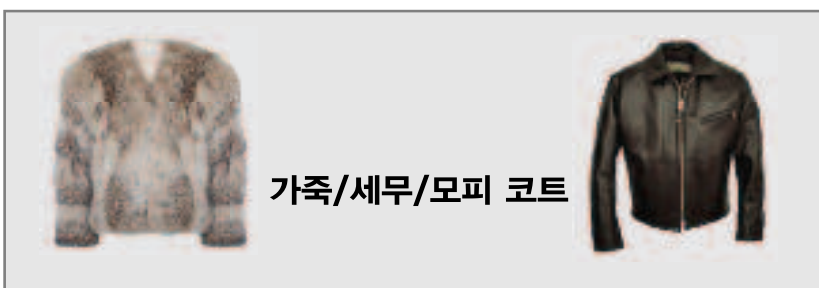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미동부 최대 규모의 가죽/카펫 전문 클리너 SINCE 1999

저희 I.L.C.C가 메사추세츠, 뉴햄프셔에 계신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단시간내에 많은 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기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I.L.C.C 는 15,000sq.ft. 규모와 그동안 세탁 경험을 토대로 다른 세탁업계로부터 만족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오래 동안 연구하여, 이제 새롭게 정의된 기술과 장비로 이 업계에 선두에 있음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귀 업소의 가죽, 부츠, 카펫,세무,모피 코트, 카펫, 외딩가운 등의 모든 세탁과 Cold Storage를 믿고 맡기십시오. **좋은 Quality 와 신속한 Delivery 그리고 합당한 가격**으로 끝까지 고객 여러분들의 선택에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결정의 그 순간...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 동반자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보다 좋은 서비스로,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JACKET \$20
- PANTS \$18
- COAT \$27
- UGG BOOTS(Reg) \$16 / (Large) \$18
- RUG(Reg) \$1/ sq.ft.

모든 종류 옷 수선 가능



International Leather Care Corp.

393 S. Franklin St. Hempstead, NY 11550
 Tel: 516-292-5810, Fax: 516-292-5812
 E-mail: ilcccleaners@gmail.com

www.ilccny.com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6) 새해 투자 결심

2013년에 이어서 2014년도 투자자 에겐 좋은 한 해였습니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3.6%를 기록했으며 2013년도는 32%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투자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투자 결심 네 (4)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놀라운 투자 상품**
점심이나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며 파는 금융 상품은 투자자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저것 보장한다는 상품도 위험한 상품일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도 제대로 된 금융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한 금융상품이 투자하는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장에서 이자

로 5~6%를 주면서 보너스로 몇 퍼센트 더 준다고 합니다. 투자 상품을 만든 회사는 모든 경비와 수익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 상품을 팔아준 사람한테도 7~8%의 커미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상품을 만든 회사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여 이 모든 경비와 이익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화려한 무지개 뒤에는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투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는 일반 투자자를 혼란하게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일반 투자자가 당연히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감독기관(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서 투자할 때 조심하라는 투자 상품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뉴어티

(annuity), 부동산 (non-trade REIT), 생명보험(equity index life insurance) 등입니다. 듣기에 너무 유혹적인 투자는 대부분 제대로 된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
미래의 주식시장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최고 부자 명단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습관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팔고서 나옵니다.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 나오는 투자 실패의 습관을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는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의 조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무시**
신문, 잡지, 방송, 등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 혹은 어느 저명한 경제학자의 투자 조언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년 초 모든 경제학자나 투자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투자를 조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자율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권 수익률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오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확히 예측한 적이 거

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이리하다면 골프 친구나 장인어른의 투자 추천은 더욱 멀리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 경비**
투자자의 수익률과 높은 경비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비싸면 그만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덱스 펀드가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투자 비용은 0.3%이지만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의 비용은 1.3%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왜 1.0%를 투자 비용으로 더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뮤추얼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 더 높을 확률은 약 15~20% 정도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무허가 건물 구입자 피해

무허가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구입자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주택 건물들이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다. 물론 상가에서도 무허가 건물을 볼 수 있다.

오랜세월 동안 무허가 건물인줄도 모르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의 무허가 건물은 차고를 주거용 방이나 사무실로 개조하고 있다. 한인들 경우에는, 무허가 침실 증축, 화장실, 계단 공사, 지붕 면적 증축, 파티오를 방으로 개조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단독 주택을 ‘별집아파트’ ‘쪽방 하숙집’ ‘불법 도박장’ ‘산후조리원’ 등으로 활용한다. 단독 주택 집 한 채를 17개 방으로, 5동짜리 아파트를 21개 방으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받는 한인도 있다. 어떤 집은 주택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 단층집을 건축 허가없이 2층으로 증축한 것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주택을 구입한 후에야 파티오를 방으로 무허가 증축한 것을 알았다.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니 2만 5,000달러라는 경비가 지출돼 판매자 상대로 피해 청구를 한 사건이 있다.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가 뒤따른다.

시정 고발 대상 : 한인 타운(Allston)에는 ‘별집아파트’ ‘쪽방하숙집’ 건물주와 세입자들간에 시비가 많다. 이사비용, 임대료 지불 거부, 퇴거 거부, 복구공사 방해와 피해 청구까지 당한다. 세입자가 무허가 건축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시정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허가 취소 :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의 결정 잘못된 경우 그리고 소유주가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법규 위반이 되었을 때는 과거에 발급된 건축허가와 사용권도 전부 취소당할 수 있다.

형사 처벌 대상 : 언제 누구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고발을 당할지 모른다. 시정 건축과의 ‘건축 감독과’ 에 신고하면 불법 건물 검사부터 경고장, 벌금 및 형사처벌이 따르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건축물 철거도 당한다.

임대료 징수 못 한다 : 무허가 건물에는 임대료 징수를 하지 못한다. 무허가 건물에 임대 계약은 불법 계약이다. 불법 계약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무허가 건물주가 입주자를 퇴거 시키면서도 체납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임

대료 할인, 건물주가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위반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요청을 할 수도 없다. 무허가 건물은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다.

시정이 임대료 관리 : 무허가 임대 건물에는, 시정의 강제 임대료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허가 없이 차고를 개조해서 임대를 준 건물에 대해서도 시정 ‘임대료 관리(REAP)’ 대상이다. 무허가 임대 건축물 그리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있을때에는 시정에서 임대료를징수해서 강제로 수리를 요구하고 시정에서 임대료 관리를 한다.

세금 혜택 제외 : 건축물이 주법 또는 지방시의 건축 규정에서 생활환경에 열악한 경우에는 주 정부 세금 징수국(State Franchise Tax Board)에도 통고한다. 건물주가 세금에서 이자, 분할 상환, 감가상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소송으로 연결되면 건물주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세입자 과실 책임 : 주택을 불법 개조해서 하숙집으로 운영하던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입주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주인한테 화재 참사 책임이었다.

부동산 판매 문제 : 부동산 판매를 할 때에도 무허가 오명으로 판매가격, 흥정, 판매 후에도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7.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쥬니어(11학년) 학생들이 해야할 사항들(1-3월 사이)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해 원서접수를 마무리했다. 물론 몇 개 대학들은 아직까지 원서를 받고 있기는 하다. 시니어들의 원서 마무리는 곧 모든 학교의 칼리지 카운셀러들이 자연스럽게 쥬니어 학생들에 대한 원서 작업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쥬니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지만 특히 1월과 3월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대학들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은 네비안스(Naviance)라는 대학입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진학 상담을 한다. 물론 네비안스는 학점과 SAT 1 점수의 상관 관계로만 대학진학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하지만 현재까지 만들어진 대학 진학 소프트웨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고 모든 추천서와 학교 성적들이 네비안스를 통해 모든 대학들에 보내지고 있다.

네비안스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이 질문들과 학교 카운셀러가 학생들과의 상담과 지난 몇 년간 각 과목별 선생님들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학생들 추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네비안스의 질문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대학 선정보다 중요한 첫단추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3월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네비안스 질문서 작성 중에 학생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대학 지원전까지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썸머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썸머 동안 무엇을 본인이 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 성적은 두 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요소로 꾸준히 잘 관리를 해야 한다. SAT 1 시험은 적어도 3월까지는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5월 AP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고 AP 시험 준비는 곧 조금만 준비하면 5,6월에 SAT 2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참고로 SAT 2는 5,6월에 걸쳐서 보는게 좋고 문과와 이과 분야에서 골고루 보는 것이 매우 좋다. 특정 학교는 SAT 1 대신 SAT 2 세 과목을 SAT 1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이때 분야별 세 과목의 성적을 요구한다. 즉 수학과 과학 중 한 개, 외국어 분야 한 개, 역사 분야 한 개, 그리고 영어 분야 한 개로 이 분야들중 세계의 SAT 2 과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있는 SAT 2 과목을 시험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동시에 건강도 잘 유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많은 경시 대회가 몰려있고, 동시에 많은 시험들과 다음년도 리더쉽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기에 교외활동과 아카데믹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시 대회로는 수학, 에세이, 과학, 외국어, 아트 등 다양한 경시 대회들이 있어 사전에 흥미있는 분야의 경시 대회를 준비해서 입상하도록 하자. 대학 원서에 총 5개의 경시 대회 입상 경력을 쓰게 되어 있다.

추천서 써주실 분을 미리 염두해 두고 선생님과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 본인의 흥미, 열정, 그리고 재능을 직, 간접적으로 알리기 시작한다. 가능하다면 문과와 이과쪽 분야의 선생님들을 추천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3월경에 정식으로 추천서를 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야 한다. 추천서를 부탁드리기 전에 칼리지 카운셀러에게 추천서 부탁할 추천인들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듣고 최종 부탁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대학 원서는 혼자 독불 장군처럼 쓰는게 아니라 모든 중요한 사항은 칼리지 카운셀러와 상의하여 완성된 그림을 한 번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칼리지 카운셀러를 만나게 매우 중요하다. 만 날때마다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가지고 만나게 센스도 필요하다.

칼리지 투어와 인터뷰를 시작해야 한다. 칼리지 투어는 가능하다면 지원할 모든 학교를 방문하는게 좋다. 투어 시작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충분히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 하며 친구, 친척 등이 방문할 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능하다면 만나보도록 하자. 동시에 학교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수업 참관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예약을 하여 참관 해보는 것도 좋다. 방문 후에는 땀큐 노트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인상을 충분히 기록해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장 추천하는 점은 방문전 학교 원서를 읽어 보고 원서가 원하는 답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노력만 보인다면 방문한 학교에 대한 에세이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특징을 쓸 수 있다. 물론 방문 후 칼리지 카운셀러에게 방문한 모든 학교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느낌을 써서 제공한다면, 추후 카운셀러가 대학과 학생 관련 대화 시 많이 참조하고 입학에 대해 대학에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쥬니어 후반부에는 학업, 시험, 경시 대회, 리더쉽, 칼리지 투어, 썸머, 추천서 부탁, SAT와 AP 시험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만큼 부담감과 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한국 대학교 영어 전형 확대

한국 대학교 입시 전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수능 점수와 내신 등급으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학교들이 점점 더 줄고 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영어 특별 전형이나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의 경우 이미 2014 학년도와 2015 학년도에 국제 계열의 모집 인원을 늘린 바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연세대의 국제계열 특기자전형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 40명이 추가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고려대의 국제인재 특별전형을 포함해, 서강대, 성균관대 등 여러 상위 대학들의 여학/국제 계열 특별전형의 모집 방법이 바뀌거나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더 자세한 입시 전형에 대한 설명은 2014년 4월 21일자 칼럼 [IVY 말고 SKY로?] 참조)

2015년 변화하는 대입 준비 (2)

다양한 방식의 입학 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975년에 처음 발족한 이후로, Common Application은 오늘날 500개가 넘는 미국 대학들이 사용할 정도로 성장했고, 그 중 약 3분의 1 정도가 신입생 지원 방식으로 CommonApp을 유일하게 택하는 등 대학 지원 방식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입 원서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Common Application 외에 다른 형식의 원서나 지원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CommonApp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Universal College Application은, 현재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포함해 46개 대학의 인정을 받는 등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아예 종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화 <Legally Blonde: 금발은 너무해>에서 주인공 '엘 우즈'는 입학 시험 점수와 더불어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까지 포함해) 자신의 일상이 담긴 자기 소개 동영상을 하버드 로스쿨에 제출해 합격 통지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메릴랜드 주 소재의 교양대학교 Goucher College에서는 CommonApp이나 UCA와 더불어 동영상이나 UCC 형식의 원서도 받아준다. 단순히 글로 자기 자신을 모두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지원 방법은 점점 더 유행할 것이고, 내신 성적이나 시험 점수를 넘어서 학생을 평가하는 학교 또한 더

많아질 것이다.

객관적인 수치를 넘어서는 학생 평가

대입 원서 방식의 경계가 허물어 지고 있듯이, 학교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도 많이 변해왔다. 최고 명문대학들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단순히 객관적인 수치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SAT 만점이나 수석 졸업생, 학생 회장 이력을 가진 학생들이 명문대에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학교의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고, 여러가지 과외 활동이나 취미, 특기 등이 학생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평가 받게 한다. (2012년 6월 6일자 칼럼 [명문대 합격 기준] 참조) 이제 학교들은 학생 개개인의 배경을 꼼꼼히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은 물론 개인적인 사연까지 모두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심지어 학생의 인성, 인간적인 면모를 표준 시험 점수보다 더 중요시 하는 학교들도 있다. 명문 교양 대학인 Bowdoin College, Wesleyan University, Bryn Mawr College 등은 SAT나 ACT 등의 표준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US News Liberal Arts College 5위에 랭크되어 있는 Bowdoin College의 경우 1969년부터 이런 방식을 택해왔고, 작년 신입생 지원 학생 중 약 30%가 시험 점수 없이 합격 발표를 받았다. 버몬트 주의 교양대학 Bennington

College는 학생 스스로 원서를 제작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에세이 질문이 자신을 특별하게 표현하기에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직접 만들어내면 된다. 포트폴리오 형식도 좋고, 연구 과제에 대한 보고서도 괜찮다. 지금까지 써온 습작을 모두 모아서 문집으로 만들어도,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서 추천서를 모두 받아도 평가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의 내신 성적표와 시험 점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다.

아직까지는 이런 방식이 변칙으로 생각되는 시대지만, 결론은 이 모두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큰 그림 (Holistic approach)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학생의 모든 이력을 포장하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나라의 '사람'을 알리는 스토리텔링이 점점 더 먹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 대입이라는 경쟁 속에서 나만의 특별함을 알려야 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월Winter Break Program

기간: 2.14(토)~22(일)(9일간)

3.14일 SAT시험을 대비한 집중반

SAT I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5일, W:2일, Math:1일)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 II subjects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5월AP,the national Spanish &Latin exam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